『月印釋譜』 卷十三과 『法華經諺解』의 同義語 硏究

南 星 祐*

Ⅰ. 序 言

이 논문은 『月印釋譜』 卷十三(1459)과 『法華經諺解』(1463)의 對比를 통해 두 文獻에 등장하는 語彙 중 同義語를 實證的으로 究明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두 문헌에서 발견되는 동의 관계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. 첫째는 固有語간의 同義이고 둘째는 固有語와 漢字語간의 同義이며 셋째는 漢字語간의 同義이다.

『月印釋譜』는 『月印千江之曲』(1449)과 『釋譜詳節』(1447)의 合編으로 15세기 국어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고 그 質과 量에 있어서 다른 자료들의 추종을 불허한다.

『월인석보』 卷13에 해당하는 『법화경언해』 부분은 信解品 第四, 藥草喩品 第五 및 授記品 第六이다.

두 문헌에서 발견되는 同義語에 대한 先行 硏究로 李崇寧(1971) 및 南星祐(1992)가 있다. 李崇寧(1971:9-10)은 『월인석보』와 『법화경언해』에서 발견되는 固有語간의 동의 관계를 고찰한다. 南星祐(1992)는 『月印釋譜』와 『法華經諺解』의 대비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를 固有語간의 同義, 固有語와 漢字語간의 同義 그리고 漢字語간의 同義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.

---

* 韓國外國語大學校

두 문헌의 대비를 통해『월인석보』권13에『법화경언해』의 원문이 상당 부분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. 번역되지 않은『법화경언해』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.

1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偏右肉袒은 示降志尊法이오<法華二 178a>…… 此ᄂᆞᆫ 總標ㅣ오 下ᄂᆞᆫ 自釋이라<法華二 178a>"
2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以疲懈故로 但念小乘空法ᄒᆞ고 不復求<法華二 179a>進也ᄒᆞ니라<法華二 179b>"
3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釋上之失이 爲滯小故ㄹᆞᆫ돌ᄒᆞ니라<法華二 181a>"
4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商은 以遷有資無ㅣ오<法華二 186a>…… 商估ᄂᆞᆫ猶商人也ㅣ라<法華二 187a>"
5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內音은 納이니 或出或納也<法華二 196a>ㅣ라
6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如所謂已陳芻狗也ㅣ라<法華二 212a>"
7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上은 皆譬設權ᄒᆞ니라<法華二 213b>"
8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上은 總喩昔失ᄒᆞ니라<法華二 219b>"
9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結喩今得也ᄒᆞ니라<法華二 226b>"
10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須菩提ᄂᆞᆫ 眞佛子ㅣ언마ᄅᆞᆫ 爲合譬故로 言似<法華二 227a>ᄒᆞ니라<法華二 227b>"
11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觀今說一ᄒᆞᄉᆞᆸ고 視昔彈偏ᄒᆞᄉᆞ오니 足知佛心이本以大化ㅣ샷다<法華二 232b>"
12) 信解品 第四의 註釋文 "結慶今得也ᄒᆞ니라<法華二 233a>"
13) 授記品 第六의 大文 "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ᄒᆞ샤 而說偈言ᄒᆞ샤ᄃᆡ 告諸比丘ᄒᆞ노니<法華三 61a>…… 光明世尊이 其事ㅣ 如是ᄒᆞ리라<法華三 62a>"
14) 授記品 第六의 주석문 "頌이 應長行ᄒᆞ시니<法華三 62b>…… 法王之子ᄂᆞᆫ 卽大心聲聞也ㅣ라<法華三 63a>
15) 授記品 第六의 大文 "大雄猛世尊이 諸釋之法王이시니<法華三 64a>…… 如以甘露酒ᄒᆞ야 除熱得淸凉ᄐᆞᆼᄒᆞ리로소이다<法華三 64b>
16) 授記品 第六의 주석문 "初四句ᄂᆞᆫ<法華三 64b>…… 請記求益也ᄒᆞ니라<法華三 64b>"
17) 授記品 第六의 大文 "如終飢國來ᄒᆞ야<法華三 65a>…… 然後에ᅀᅡ 乃敢

食ᄃᆞᆺᄒᆞ야 <法華三 65a>

18) 授記品 第六의 주석문 "此애 設譬ᄒᆞ고 下애 自釋ᄒᆞ니라<法華三 65a>"

19) 授記品 第六의 大文 "我等도 亦如是ᄒᆞ야 每惟小乘過ᄒᆞ야<法華三 65a> …… 若蒙佛授記ᄒᆞᅀᆞ오면 爾乃快安樂ᄒᆞ리로소이다<法華三 65b>"

20) 授記品 第六의 주석문 "每惟小乘過ᄂᆞᆫ<法華三 65b>…… 所謂忽遇大王饍也ㅣ라<法華三 65b>"

21) 授記品 第六의 大文 "大雄猛世尊이<法華三 66a>…… 如飢ㅣ 須敎食ᄃᆞᆺ호이다<法華三 66a>"

22) 授記品 第六의 주석문 "結請也ㅣ라<法華三 66a>"

23) 授記品 第六의 大文 "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ᄒᆞ샤 而說偈言ᄒᆞ샤ᄃᆡ 請比丘衆아<法華三 69a>…… 像法도 亦住二十小劫이리라<法華三 70b>"

24) 授記品 第六의 주석문 "須菩提ㅣ<法華三 71b>…… 聽受佛語ᄂᆞᆫ 言皆篤信樂善ᄒᆞ야 無薄俗也ㅣ시니라<法華三 72a>"

25) 授記品 第六의 大文 "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ᄒᆞ샤 而說偈言ᄒᆞ샤ᄃᆡ 眞寶無異ᄒᆞ니<法華三 73b>…… 莊嚴其國ᄒᆞ리라<法華三 74a>"

26) 授記品 第六의 주석문 "閻浮那提金은 紫艶이 無比ᄒᆞ니<法華三 75b>…… 非謂捨有之無也ㅣ라<法華三 76a>"

27) 授記品 第六의 大文 "爾時世尊이 欲重宣此義ᄒᆞ샤 而說偈言ᄒᆞ샤ᄃᆡ 我此弟子大目揵連은 <法華三 79a>…… 汝等이 善聽ᄒᆞ라<法華三 80a>"

28) 授記品 第六의 주석문 "長表金刹者ᄂᆞᆫ<法華三 80b>…… 及開第三周說之端이시니라<法華三 81a>"

Ⅱ. 固有語간의 同義

두 문헌의 대비를 통해 확인되는 고유어간의 동의 관계는 名詞類, 動詞類, 冠形詞 및 副詞에서 고찰될 수 있다.

Ⅱ.1. 名詞類에서의 동의

고유어의 名詞類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는 形式的 관점에서 相異한 것과

相似한 것이 있다. 상이형은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명사류들이 동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이다. 예를 들면 [時]를 뜻하는 'ᄲᅴ'와 '제'를 비롯하여 [處]의 뜻을 가진 '짜ㅎ'와 '곧', 그리고 [今]을 뜻하는 '이제'와 '오ᄂᆞᆯ' 등이 있다. 相似한 것에는 [先]의 뜻을 가진 '아래 對 아ᄅᆡ'를 비롯하여 [今日]을 뜻하는 합성어 '오ᄂᆞᆰ날'과 단일어 '오ᄂᆞᆯ' 그리고 [言]의 뜻을 가진 '말'과 그것의 파생어인 '말ᄊᆞᆷ'이 있다.

<1> ᄲᅴ 對 제

두 명사가 [時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 그리고 (1c)와 (1d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그ᄲᅴ 두 사ᄅᆞ미 窮子 어더<月十三 20b>
b. 그제 두 브린 사(206a)ᄅᆞ미 즉재 窮子 求ᄒᆞ야 ᄒᆞ마 어더(時二使人이 卽求窮子ᄒᆞ야 旣已得之ᄒᆞ야)<法華二 206b>

(1) c. 그ᄲᅴ 窮子(32a)ㅣ 아ᄇᆡ 이 말 듣고<月十三 32b>
d. 이제 窮子ㅣ 아ᄇᆡ 이 말 듣고(是時窮子ㅣ 聞父此言ᄒᆞ고)<法華二 226b>

한편 '時'가 두 문헌에서 'ᄲᅴ'로만 번역되기도 하고 '제'로만 번역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e)와 (1f) 그리고 (1g)과 (1h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) e. 그ᄲᅴ 使者ㅣ<月十三 16a>
f. 그ᄲᅴ 브린 사ᄅᆞ미(爾時使者ㅣ)<法華二 200b>

(1) g. 그제 窮子ㅣ 너교ᄃᆡ<月十三 16b>
h. 그제 窮子ㅣ 제 念호ᄃᆡ(于時窮子ㅣ 自念호ᄃᆡ)<法華二 200b>

<2> 짜ㅎ對 곧

두 명사가 [處]의 뜻을 가지는 경우에 동의 관계가 성립한다. '짜ㅎ'는 原義가 '天'과 대립 관계에 있는 [地]인데(예, 地ᄂᆞᆫ 짜히라<月序 18a>) 특수화되어 '地'의 일부분인 [處]의 뜻으로 사용된다. 두 명사의 동의 관계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2) a. 物 어듧 짜 아니라 호ᄆᆞᆫ<月十三 15a>
b. 物 得ᄒᆞᆯ 곧 아니ᄂᆞᆫ(非得物處ᄂᆞᆫ)<法華二 197b>

한편 '處'가 『월인석보』 권13과 『법화경언해』에서 '짜ㅎ'로만 번역되기도 하고 '곧'으로만 번역되기도 한다.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c)와 (2d) 그리고 (2e)와 (2f)는 '짜ㅎ'로 번역되는 경우이고 (2g)와 (2h)는 '곧'으로 번역되는 경우이다.

(2) c. 내 慵力ᄒᆞ야 物 어듧 짜히 아니니<月十三 12b>
d. 내ᄋᆡ 慵力ᄒᆞ야 物 어듧 짜히 아니로소니(非我의 慵力ᄒᆞ야 得物之處ㅣ로소니) <法華二 194b>

(2) e. 일 홇 짜히 잇ᄂᆞ니<月十三 20a>
f. 일 ᄒᆞᆯ 짜히 잇ᄂᆞ니(有作處ᄒᆞ니)<法華二 206a>

(2) g. 손ᄌᆡ 믿고대 이셔<月十三 28b>
h. 그저 믿고대 이시며(故在本處ᄒᆞ며)<法華二 219b>

<3> 짜ㅎ 對 ᄃᆡ

두 명사가 [所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 그리고 (3c)와 (3d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 'ᄃᆡ'는 의존 명사

로 반드시 冠形形 뒤에 온다.

(3) a. 맛ᄃᆞᆷᆞᆯ ᄯᅡ히 업스리로다 ᄒᆞ야<月十三 10a>
b. 맛ᄃᆞᆯ ᄠᅴ 업스리로다 ᄒᆞ야(無所委付ㅣ로다 ᄒᆞ야)<法華二 189b>

(3) c. 그러나 잇논 ᄯᅡ히<月十三 26a>
d. 그러나 잇논 ᄃᆡ(然其所止ᄂᆞᆫ)<法華二 215a>

한편 '所'는 두 문헌에서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e)와 (3f), (3g)와 (3h) 그리고 (3i)와 (3j)에서처럼 다 의존명사 'ᄃᆡ'로만 번역된다.

(3) e. 이제 맛ᄃᆞᆷᆞᆯ ᄃᆡ 잇거다<月十三 15a>
f. 이제 맛ᄃᆞᆯ ᄠᅴ 잇도다(今有所付ㅣ로다)<法華二 198b>

(3) g. 천랴이 맛ᄃᆞᆷᆞᆯ ᄃᆡ 이슈믄<月十三 15b>
h. 천량이 맛ᄃᆞᆯ ᄠᅴ 이쇼ᄆᆞᆫ(財物有付ᄂᆞᆫ)<法華二 199a>

(3) i. 법이 심곪 ᄃᆡ 겨샤ᄆᆞᆯ 가줄비고<月十三 15b>
j. 법 심기샬 ᄠᅴ 이슈믈 가줄비고(譬法有所援ㅣ오)<法華二 199a>

<4> 드틀 對 듣글

두 명사가 [塵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a)와 (4b) 그리고 (4c)와 (4d)에서 잘 확인되고, 그것들이 [塵土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e)와 (4f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4) a. 拂은 能히 드트를 앗고<月十三 14a>
b. 拂은 能히 듣그를 앗고(蓋佛은 能去塵이오)<法華二 197a>

(4) c. 空假ㅅ드트를 ᄲᅥ러ᄇᆞ려<月十三 14a>
d. 空假ㅅ듣그를 ᄲᅥ러ᄇᆞ려(拂去空假之塵ᄒᆞ야)<法華二 197a>

(4) e. 드틀 모매 무티고<月十三 22a>
f. 듣글로 모매 무티고(塵土로 坌身ᄒᆞ고)<法華二 209b>

<5> 듣글 對 몬지

두 명사가 [塵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a)와 (5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5) a. 똥 몬지 무더<月十三 21b>
b. 똥홀기 듣글 무더(糞土ㅣ 塵坌ᄒᆞ야)<法華二 209b>

'塵坌'의 '塵'이 두 문헌에서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c)와 (5d)에서처럼 동의 관계에 있는 '드틀, 듣글'로 번역된다.

(5) c. 셩가시오 드틀 무두믄<月十三 22b>
d. 시들며 듣글 무두믄(痩悴塵坌은)<法華二 210b>

<6> 말 對 말ᄊᆞᆷ

두 명사가 [言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a)와 (6b)에서 잘 입증된다. '말ᄊᆞᆷ'은 '말'의 파생어이다.

(6) a. 말ᄊᆞᄆᆡ 이어긔 밋디 몯ᄒᆞᆯᄊᆡ<月十三 43a>
b. 마리 이에 밋디 몯ᄒᆞᆯᄊᆡ(言未及此ᄒᆞᆯᄊᆡ 故로)<法華三 5a>

<7> 사ᄅᆞᆷ 對 이

'사ᄅᆞᆷ'과 의존명사 '이'가 [者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7a)와 (7b) 그리고 (7c)와 (7d)에서 잘 확인된다.

(7) a. 道 니ᄅᆞ논 사ᄅᆞ미로니<月十三 49b>
b. 道 니ᄅᆞ니로니(說道者ㅣ로니)<法華三 17a>

(7) c. 安 몯ᄒᆞ니ᄅᆞᆯ 安케 ᄒᆞ며<月十三 49a>
d. 便安티 몯ᄒᆞᆫ 사ᄅᆞᄆᆞᆯ 便安케 ᄒᆞ며(未安者ᄅᆞᆯ 令安ᄒᆞ며)<法華三 16a>

<8> 씨 對 가지

두 명사가 [種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a)와 (8b)에서 잘 확인된다.

(8) a. 씨 제여고ᄆᆞᆯ씨<月十三 37b>
b. 가지 달오미 이실씨(種有差別故로)<法華三 3a>

<9> 시름 對 분별

두 명사가 [憂慮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a)와 (9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9) a. 내 네 아비 ᄀᆞᆮᄒᆞ니 ᄂᆞ외야 시름 말라<月十三 23b>
b. 내 네 아비 ᄀᆞᆮᄒᆞ니 ᄂᆞ외 분별 말라(我如汝父호니 勿復憂慮ᄒᆞ라)<法華二 211b>

<10> 아래 對 아ᄅᆡ

두 명사가 [先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

역인 (10a)와 (10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0) a. 아랫 ᄆᆞᅀᆞᄆᆞᆯ 제 더러ᄇᆡ 너기ᄂᆞᆫ ᄃᆞᆯ 아라<月十三 29a>
b. 아랫 ᄆᆞᅀᆞᄆᆞᆯ 제 더러이 너기ᄂᆞᆫ ᄃᆞᆯ 알고(知……自鄙先心ᄒᆞᄂᆞᆫᄃᆞᆯ 코)<法華二 229a>

<11> 예 對 이에

두 대명사가 [此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1a)와 (1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1) a. 예 온 이ᄅᆞᆯ 뉘으처<月十三 12b>
b. 이에 오ᄆᆞᆯ 뉘으처(悔來至此ᄒᆞ야)<法華二 194b>

한편 '此'는 두 문헌에서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1c)와 (11d)에서처럼 '이에'로만 번역된다.

(11) c. ᄒᆞ다가 이에 오래 이시면<月十三 13a>
d. ᄒᆞ다가 이에 오래 住ᄒᆞ면(若久住此ᄒᆞ면)<法華二 194b>

<12> 오ᄂᆞᆳ날 對 오ᄂᆞᆯ

명사 '오ᄂᆞᆯ'과 '날'의 合成인 '오ᄂᆞᆳ날'이 '오ᄂᆞᆯ'과 [今日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a)와 (12b)에서 잘 입증된다.

(12) a. 오ᄂᆞᆳ날 世尊이<月十三 33b>
b. 오ᄂᆞᆯ 世尊이(今日世尊이)<法華二 229a>

<13> 이어긔 對 이에

두 대명사가 [於此]와 [此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3a)와 (13b) 그리고 (13c)와 (13d)에서 잘 확인된다.

(13) a. 저는 이어긔 願ᄒᆞ논 ᄠᅳ디 업다니<月十三 35b>
b. 나ᄂᆞᆫ 이에 ᄠᅳᆮ願이 업다니(自於此애 無有志願ᄒᆞ다니)<法華二 231a>

(13) c. 말ᄊᆞᄆᆡ 이어긔 밋디 몯ᄒᆞᆯᄊᆡ<月十三 43a>
d. 마리 이에 밋디 몯ᄒᆞᆯᄊᆡ(言未及此ᄒᆞᆯᄊᆡ 故로)<法華三 5a>

<14> 이제 對 오ᄂᆞᆯ

두 명사가 [今] 즉 '이제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4a)와 (14b) 그리고 (14c)와 (14d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14) a. 이젯 機 큰 게 믈로ᄆᆞᆯ 애와티샤미라<月十三 10b>
b. 오ᄂᆞᆳ 機ㅣ 큰 게 믈로ᄆᆞᆯ 츠기 너기실 씨라(恨今之機ㅣ 退大也ㅣ라)<法華二 190a>

(14) c. 이제 緣이 ᄒᆞ마 니거<月十三 73b>
d. 오ᄂᆞᆳ 緣이 ᄒᆞ마 니거(今緣이 已熟ᄒᆞ야)<法華三 83b>

한편 두 문헌에서 '今'이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4e)와 (14f)에서처럼 '이제'로만 번역되고 (14g)와 (14h)에서처럼 '오ᄂᆞᆯ'로만 번역된다.

(14) e. 내 이제 金銀珍寶ㅣ 만히 이셔<月十三 26b>
f. 내 이제 金銀珍寶ᄅᆞᆯ 만히 두어(我今多有金銀珍寶ᄒᆞ야)<法華二 216b>

(14) g. 오ᄂᆞᆯᄇᆞ터 아ᄃᆞᆯᄀᆞ티 호려 닐옴ᄃᆞᆯᄒᆞᆫ<月十三 25a>
h. 오(213b)ᄂᆞᆯᄇᆞ터 아ᄃᆞᆯᄀᆞ티 호리라 닐옴ᄃᆞᆯᄒᆞᆫ(言自今如子等者ᄂᆞᆫ)<法華二 214a>

<15> 적 對 제

두 명사가 [時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5a)와 (15b) 그리고 (15c)와 (15d)에서 잘 확인된다.

(15) a. 네 샹녜 일홇 저긔<月十三 24b>
b. 네 샹녜 지슬 쩨(汝ㅣ 常作時예)<法華二 213a>

(15) c. ᄒᆞ마 주긇 저긔<月十三 29a>
d. ᄒᆞ마 주글 쩰 디러(臨欲終時ᄒᆞ야)<法華二 222b>

<16> 줄 對 ᄃᆞ

두 依存名詞가 '것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6a)와 (16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6) a. 이ᄂᆞᆫ……더욱 無量功德이론 주를 불기시니<月十三 43a>
b. 이ᄂᆞᆫ……더욱 그지 업스신 功德이 ᄃᆞ외신 ᄃᆞᆯ 불기시니(此ᄂᆞᆫ 明……尤爲無量功德인ᄃᆞᆯ ᄒᆞ시니)<法華三 5a>

<17> 쳔 對 쳔량

두 명사가 [財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(17a)와 (17b)에서 '쳔'이 [財]를 뜻하고 (17c)와 (17d)에서 '쳔량'이 [財]의 뜻을 가지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.

(17) a. 庫애 諸法엣 쳔이 넙디니라<月十三 8b>
b. 庫애 諸法財 넙디니라(庫溢諸法之財니라)<法華二 187a>

(17) c. 貧窮ᄒᆞᆫ 아ᄃᆞᄅᆞᆫ 五道애 困ᄒᆞ(9a)야 功德 천량 업수믈 가줄비니라<月十三 9b>

d. 窮子ᄂᆞᆫ 五道애 困ᄒᆞ야 功德財 (188a) 업수믈 가줄비니라(窮子ᄂᆞᆫ 譬困於五道ᄒᆞ야 乏功德財ᄒᆞ니라)<法華二 188b>

한편 두 문헌에서 '財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7e)와 (17f)에서처럼 '천량'으로만 번역된다.

(17) e. 천량 보비 그지 업서<月十三 7b>

f. 천량 보비 그지 업서(財寶ㅣ 無量ᄒᆞ야)<法華二 186a>

Ⅱ.2. 動詞類에서의 同義

고유어의 動詞類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는 形式的 관점에서 相異한 것과 相似한 것이 있다. 相異한 것에는 [滿足]의 뜻을 가진 'ᄀᆞᄃᆞᆨᄒᆞ다'와 'ᄎᆞ다'를 비롯하여 [欣]을 뜻하는 '깄다'와 '즐기다', [至]의 뜻을 가진 '다ᄃᆞᆮ다'와 '니를다', [滯]의 뜻을 가진 '머굴위다'와 '걸이다', [演]을 뜻하는 '부르다'와 '펴다', [慕]의 뜻을 가진 'ᄉᆞ랑ᄒᆞ다'와 'ᄃᆞᆺ다', [恨]을 뜻하는 '애왇브다'와 '측ᄒᆞ다', 그리고 [衆多]의 뜻을 가진 '하다'와 '만ᄒᆞ다' 등이 있다. 相似한 것에는 [說]과 [言]을 뜻하는 '니르다'와 '니ᄅᆞ다'를 비롯하여 [縛]의 뜻을 가진 'ᄆᆡ이다'와 合成動詞 '얽ᄆᆡ여다' 그리고 [淺]의 뜻을 가진 '넡다'와 그것의 파생어인 '넡갑다'가 있다.

<1> ᄀᆞᄃᆞᆨᄒᆞ다 對 ᄎᆞ다

두 상태동사가 [滿足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니러나샤 功 일우샤 本願이 ᄀᆞᄃᆞᆨᄒᆞ신 ᄠᅳ들 뵈실 ᄊᆞᄅᆞ미라<月十三 58b>

b. 니러나샨 功이 이르샤 本願이 ᄎᆞ샨 ᄠᅳ들 뵈실 ᄊᆞᄅᆞ미시니라(以示出興功成ᄒᆞ샤 本願이 滿足之意耳시니라)<法華三 55a>

<2> 가싀다 對 시들다

두 동사가 [憔悴] 즉 '파리하고 쇠약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) a. 양ᄌᆡ 가싀요ᄆᆞᆫ<月十三 20b>
b. 양ᄌᆡ 시드로ᄆᆞᆫ(形色憔悴ᄂᆞᆫ)<法華二 207a>

한편 두 문헌에서 '憔悴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c)와 (2d)에서처럼 '시들다'로만 번역된다.

(2) c. 아ᄃᆞ리 모미 시드러 여위고<月十三 21b>
d. 아ᄃᆞ리 모미 여위고 시들며(子身이 羸瘦憔悴ᄒᆞ며)<法華二 209b>

<3> 굴ᄒᆞ다 對 굴히다

두 동사가 [分別] 즉 '가리다'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3) a. 種種 롱담 議論ᄋᆞᆯ 갓ᄀᆞ리 굴ᄒᆞ야<月十三 34b>
b. 種種 戱論ᄋᆞᆯ 갓ᄀᆞ리 굴히야(顚倒分別種種戱論ᄒᆞ야)<法華二 230a>

<4> 뻐디다 對 ᄲᅥ디다

두 동작동사가 [淪] 즉 '꺼지다, 빠지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a)와 (4b)그리고 (4c)와 (4d)에서 잘 확인된다.

두 동사는 語頭子音群만 상이할 뿐이다.

(4) a. 열히 스믈 히는 次第로 ᄭᅥ듀물 가줄비니라<月十三 7a>
b. 시혹 열 스믈흔 次第로 ᄭᅥ듀믈 가줄비니라(或十二十은 譬次第而淪也ㅣ라)<法華二 183a>

(4) c. 다론 나라ᄒᆞᆫ 五道애 ᄭᅥ듀물 가줄비니(月十三 7a>
d. 다론 나라ᄒᆞᆫ 五道애 ᄭᅥ디여 걸유믈 가줄비니(他國은 譬淪滯五道ㅣ니)<法華二 183a>

<5> 거슬ᄲᅳ다 對 거슬다

두 동작동사가 [怫] 즉 '거스르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a)와 (5b)에서 잘 입증된다.

(5) a. 제 性에 거슬ᄲᅳ디 아니케 ᄒᆞ실씨<月十三 55a>
b. 제 性에 거스디 아니ᄒᆞ실씨(不怫其性故로)<法華三 27b>

<6> 건나다 對 건네ᄠᅱ다

두 동작동사가 [超] 즉 '건너다, 건너뛰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a)와 (6b)에서 잘 확인된다.

(6) a. 菩提ᄅᆞᆯ 건나 證호미 度ㅣ오<月十三 49b>
b. 菩提ᄅᆞᆯ 건네ᄠᅱ여 證ᄒᆞᆯ씨 니ᄅᆞ샨 度ㅣ오(超證菩提曰度ㅣ오)<法華三16a>

<7> ᄭᅩ다 對 밍ᄀᆞᆯ다

두 동작동사가 [爲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

(7a)와 (7b)에서 잘 입증된다.

(7) a. 黃金(62a)으로 노 ᄆᆞᅀᅡ 긼ᄀᆞ새 느리고<月十三 62b>
b. 黃金으로 노 ᄆᆡᇰᄀᆞ라 긼ᄀᆞ새 느리고(黃金으로 爲繩ᄒᆞ야 以界道側ᄒᆞ고) <法華三 59a>

<8> 고티다 對 ᄀᆞᄌᆞ기 ᄒᆞ다

두 동작동사가 [整] 즉 '가지런히 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a)와 (8b)에서 잘 확인된다.

(8) a. 즉재 座로셔 니러 옷 고티고<月十三 3b>
b. 즉재 座로셔 니러 옷 ᄀᆞᄌᆞ기 ᄒᆞ고(卽從座起ᄒᆞ야 整衣服ᄒᆞ고)<法華二 177b>

<9> 고티다 對 다ᅀᆞ리다

두 동작동사가 [治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a)와 (9b)에서 잘 확인된다.

(9) a. 프리 能히 病 고티ᄂᆞ니ᄅᆞᆯ 藥草ㅣ라 ᄒᆞᄂᆞ니<月十三 38a>
b. 프리 能히 病 다ᅀᆞ리ᄂᆞ닐 일후미 藥草ㅣ니<法華三 3a>

<10> 깄다 對 즐기다

두 동작동사가 [欣] 즉 '기뻐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0a)와 (10b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10) a. 비록 부텻 敎化ᄅᆞᆯ 깃거도<月十三 25b>

b. 佛化를 즐기ᄉᆞ오나(雖欣佛化ᄒᆞᄉᆞ오나)<法華二 214b>

한편 두 문헌에서 '欣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0c)와 (10d)에서처럼 '즐기다'로만 번역된다.

(10) c. 疑心이 업서 寶藏ᄋᆞᆯ 즐겨 맛게 ᄒᆞ니라<月十三 28a>
d. 疑心ㅅᄉᆞ싀 업게 ᄒᆞ야 寶藏ᄋᆞᆯ 즐겨 領케 ᄒᆞ니라(使無疑間ᄒᆞ야 而欣領寶藏也케 ᄒᆞ니라)<法華二 219a>

<11> 나ᄆᆞ라다 對 구짖다

두 동작동사가 [毁呰] 즉 '나무라다, 꾸짖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1a)와 (1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1) a. 聲聞의 小法 즐기ᄂᆞ니ᄅᆞᆯ 나ᄆᆞ라시더니<月十三 36b>
b. 聲聞의 小法 즐기ᄂᆞ닐 구짖더시니(毁呰聲聞의 樂小法者ᄒᆞ시더니)<法華二 232b>

<12> 너피다 對 부르다

두 동작동사가 [演] 즉 '자세히 설명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a)와 (1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2) a. 智慧 方便으로 너펴 니ᄅᆞ나<月十三 43b>
b. 智 方便으로 불어 니ᄅᆞ나(以智方便으로 而演說之ᄒᆞ나)<法華三 6a>

<13> 넏갑다 對 넓다

두 상태동사가 [淺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

번역인 (13a)와 (13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3) a. ᄆᆞᅀᆞᆯᄒᆞᆫ 녇가ᄫᆞ니<月十三 9b>
b. ᄆᆞᅀᆞᆯᄒᆞᆫ 거츨오 녀트니(聚落은 荒淺ᄒᆞ니)<法華二 188b>

한편 두 문헌에서 '淺'이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3c)와 (13d)에서처럼 '녇갑다'로만 번역된다.

(13) c. 性 ᄇᆡᄒᆞ시 어득고 녇가바<月十三 10b>
d. 性 ᄇᆡᄒᆞ시 어듭고 녇가와(性習이 昏淺ᄒᆞ야)<法華二 190a>

<14> 니ᄅᆞ다 對 숣다

두 동작동사가 [說]과 [謂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4a)와 (14b) 그리고 (14c)와 (14d)에서 잘 입증된다.

(14) a. 이 如來ㅅ 眞實功德을 이대 닐오미라<月十三 42b>
b. 이 如來ㅅ 眞實功德 이대 ᄉᆞᆯ오미라(是善說如來ㅅ 眞實功德이라)<法華三 4b>

(14) c. 因緣說이라 닐오ᄆᆞᆫ<月十三 73b>
d. 因緣說이라 ᄉᆞᆯ오ᄆᆞᆫ(謂之因緣說者ᄂᆞᆫ)<法華三 83a>

<15> 니르다 對 니ᄅᆞ다

두 동작동사가 [說]과 [言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5a)와 (15b) 그리고 (15c)와 (15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5) a. 곧 ᄇᆞᆯ기 니르디 아니ᄒᆞ실ᄊᆡ<月十三 57a>

b. 즉재 불기 니ᄅᆞ디 아니ᄒᆞ실씨(不卽明說ᄒᆞ실씨 故로)<法華三 30b>

(15) c. 이엔 實相ᄋᆞᆯ 브터 니르시니<月十三 57b>
d. 이ᄂᆞᆫ 實相ᄋᆞᆯ 브트샤 니ᄅᆞ시니(此ᄂᆞᆫ 依實相ᄒᆞ샤 言ᄒᆞ시니)<法華三 30b>

한편 두 문헌에서 '言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5e)와 (15f)에서처럼 '니ᄅ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15) e. 前엔 正智ᄅᆞᆯ 브터 니ᄅᆞ시고<月十三 57b>
f. 알핀 正智ᄅᆞᆯ 브트샤 니ᄅᆞ시고(前은 依正智ᄒᆞ샤 言ᄒᆞ시고)<法華三 30b>

<16> 다ᄃᆞᆫ다 對 니를다(니르다)

두 동작동사가 [至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6a)와 (16b)그리고 (16c)와 (16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6) a. 이 頓門애 다ᄃᆞ라<月十三 31b>
b. 이 頓門에 니르러(至此頓門ᄒᆞ야)<法華二 225b>

(16) c. 부텻 敎化 맛나ᅀᆞᄫᆞᄆᆞᆯ 因ᄒᆞ야 能히 두루혀 ᄉᆞᆯ펴마ᄅᆞᆫ 그러나 ᄀᆞᆺ 向ᄒᆞ고 다ᄃᆞᆫ디 몯호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<月十三 7b>
d. 佛敎 맛나ᅀᆞᄫᆞᄆᆞᆯ 因ᄒᆞ야 能히 드르혀 ᄉᆞᆯ표ᄆᆞᆯ 가ᄌᆞᆯ비니 그러나 ᄀᆞᆺ 向ᄒᆞ고 能히 니르디 몯ᄒᆞᄂᆞ니라(譬因遇佛敎ᄒᆞ야 遂能反省이니 然이나 方向之오 未能之也ㅣ니라)<法華二 184a>

한편 두 문헌에서 '到'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6e)와 (16f) 그리고 (16g)와 (16h)에서처럼 '다ᄃᆞᆫ다'로만 번역된다.

(16) e. 마초아 아ᄇᆡ 지븨 다ᄃᆞ라<月十三 11a>
f. 아ᄇᆡ 지븨 마초아 다ᄃᆞ라(遇到父舍ᄒᆞ야)<法華二 191a>

(16) g. 니ᄅᆞ논 法이 다 一切智地예 다ᄃᆞᄅᆞ니라<月十三 43b>
h. 그 닐온 法이 다 一切智地예 다ᄃᆞᄅᆞ니라(其所說法이 皆悉到一切智地ᄒᆞ니라)<法華三 6a>

두 문헌에서 '至'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6i)와 (16j)에서처럼 '니를다'로만 번역된다.

(16) i. 우리 브즈러니 精進ᄒᆞ야 涅槃애 니르러<月十三 33b>
j. 우리 이 中에 브즈러니 더 精進하야 시러 涅槃애 니르러(我等이 於中에 勤加精進ᄒᆞ야 得至涅槃ᄒᆞ야)<法華二 229a>

<17> 돔다 對 ᄠᅥ디다

두 동작동사가 [汨] 즉 '빠지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7a)와 (17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7) a. 衆生은 塵勞애 돔고<月十三 52a>
b. 衆生은 塵勞애 ᄠᅥ디고(衆生은 汨於塵勞ᄒᆞ고)<法華三 21b>

<18> 더블다 對 ᄃᆞ리다

두 동작동사가 [與] 즉 '더불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8a)와 (18b) 그리고 (18c)와 (18d)에서 잘 확인된다.

(18) a. 더브러 말 아니ᄒᆞ니<月十三 18b>
b. 다시 ᄃᆞ려 말 말라 ᄒᆞ니(莫復與語ᄒᆞ라 ᄒᆞ니)<法華二 203a>

(18) c.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돌 더브러 닐오ᄃᆡ<月十三 22a>
d. 모ᄃᆞᆫ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 ᄃᆞ려 닐오ᄃᆡ(語諸作人호ᄃᆡ)<法華二 209b>

<19> 덞다 對 더럽다

두 상태동사가 [染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9a)와 (19b) 그리고 (19c)와 (19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9) a. 白은 덞디 아니호물 니ᄅᆞ고<月十三 14a>
b. 흰요ᄆᆞᆫ 더럽디 아니호물 니ᄅᆞ고(白은 言不染이오)<法華二 197a>

(19) c. 오직 덞디 아니ᄒᆞ며 기우디 아니호미<月十三 14a>
d. 오직 더럽디 아니ᄒᆞ며 기우디 아니호ᄆᆞ로(但以不染不偏으로)<法華二 197a>

<20> 두르혀다 對 드위혀다

두 동작동사가 [번] 즉 '뒤집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0a)와 (2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0) a. 두르혀 煩惱ᄋᆡ 보차미 ᄃᆞ외요물 가줄비니라<月十三 23a>
b. 드위혀 煩惱ᄋᆡ 보차미 ᄃᆞ외요물 가줄비니라(譬……翻爲煩惱의 所擾也ㅣ라)<法華二 210b>

<21> 두립다 對 저프다

두 상태동사가 [畏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1a)와 (21b)에서 잘 확인된다. 두 상태동사는 각각 '두리다'와 '젛다'에서 파생된 것이다. '두립다'는 語根인 동사의 어간 '두리-'와 접미사 '-ㅂ'의 결합이고 '저프다'는 語根 '젛-'과 접미사 '-브'의 결합이다.

(21) a. 올ᄒᆞᆫ소내 ᄯᅮᆼ 츪 그릇 잡고 양ᄌᆡ 두리본 일 잇ᄂᆞᆫᄃᆞ시 ᄒᆞ야<月十三 22a>
b. 올ᄒᆞᆫ소ᄂᆞ로 ᄯᅮᆼ 츠ᄂᆞᆫ 그릇 잡고 양ᄌᆞ애 저품 두어(右手로 執持除糞之器

ᄒᆞ고 狀有所畏ᄒᆞ야)<法華二 209b>

한편 '畏'는 두 문헌에서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1c)와 (21d)에서처럼 다 '저프다'로만 번역된다.

(21) c. 저품 업스신 德을 表ᄒᆞ고<月十三 13a>
d. 저품 업스신 德을 表ᄒᆞ고(表無畏之德也ㅣ오)<法華二 196b>

<22> 두텁다 對 둗겁다

두 상태동사가 [厚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2a)와 (22b)에서 잘 확인된다. 『월인석보』 권13에서 '厚'의 字釋이 '두텁다'이고 『법화경언해』에서 '둗거이'는 '둗겁다'에서 파생된 전성 부사이다.

(22) a. 親厚히 ᄒᆞ야 [厚ᄂᆞᆫ 두터ᄫᆞᆯ 씨라]<月十三 23b>
b. 親히 둗거이 ᄒᆞ야(親厚之ᄒᆞ야)<法華二 212a>

<23> 드리다 對 펴다

두 동작동사가 [肆] 즉 '펴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3a)와 (2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3) a. 힘 드륧 ᄯᅡ히 이셔<月十三 12b>
b. 힘 펼 ᄯᅡ히 이셔(肆力有地ᄒᆞ야)<法華二 194b>

<24> 디나다 對 디내다

두 동작동사가 [經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4a)와 (24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4) a. 또 아니한 時節 디나니<月十三 29a>
b. 또 져고맛 時節 디내야(復經少時ᄒᆞ야)<法華二 222a>

한편 두 문헌에서 '經歷'이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4c)와 (24d)에서처럼 '디나다'로만 번역되고 '經'이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4e)와 (24f)에서처럼 '디내다'로만 번역된다.

(24) c. 國邑을 디나<月十三 9a>
d. 國邑을 디나(經歷國邑)<法華二 188a>

(24) e. 또 아니한 時節 디내다 홈ᄃᆞᆯᄒᆞᆫ<月十三 30a>
f. 또 져고맛 時節 디내욤ᄃᆞᆯᄒᆞᆫ(復經少時等은)<法華二 224b>

<25> 디내다 對 디나다

두 동작동사가 [過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5a)와 (2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5) a. 窮子ㅣ 스믈히 디내야<月十三 26a>
b. 窮子ㅣ 二十年 디나(窮子ㅣ 過二十年ᄒᆞ야)<法華二 215b>

<26> 딩다 對 ᄃᆞᆯ이다

두 동작동사가 [懸] 즉 '매달다, 매달리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6a)와 (26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6) a. 얼믠 그므를 디허도 ᄉᆡ디 아니ᄒᆞ며<月十三 59b>
b. 성긘 그므레 ᄃᆞᆯ여도 ᄉᆡ디 아니ᄒᆞ며(懸疏網而不漏ᄒᆞ며)<法華三 56a>

<27> 머굴우다 對 걸이다

두 동작동사가 [滯]와 [濡滯] 즉 '걸리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7a)와 (27b) 그리고 (27c)와 (27d)에서 잘 확인된다.

(27) a. 權에 머굴우엿던 이를 펴 니ᄅᆞ니라<月十三 34b>
b. 權에 걸유믈 펴니라(敍滯權也ㅣ라)<法華二 229b>

(27) c. 한 生을 져근 일 즐겨 오ᄂᆞᆯ ᄉᆞᆫ지 머굴우엣노라 ᄒᆞ니라<月十三 34b>
d. 한 生을 져근 法 즐겨 오(229b)ᄂᆞᆯ ᄉᆞᆫ지 걸일 씨라(謂多生을 樂小ᄒᆞ야 而今猶濡滯也ㅣ라)<法華二 230a>

<28> 머굴위다 對 걸이다

두 동작동사가 [滯] 즉 '걸리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8a)와 (28b) 그리고 (28c)와 (28d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28) a. 權에 머굴위여 이쇼ᄆᆞᆯ 가줄비니<月十三 25b>
b. 權에 걸요ᄆᆞᆯ 正히 가줄비니(正譬滯權也ㅣ니)<法華二 214b>

(28) c. 믈러가도 져근 이레 머굴위디 아니호미<月十三 26b>
d. 믈러도 져근 法에 걸이디 아니호미(退不滯小호미)<法華二 216a>

<29> 뫼호다 對 모도다

두 동작동사가 [會] 즉 '모으다'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9a)와 (29b)에서 잘 확인된다. '모도다'는 '몯-'과 사동 접사 '오'의

결합으로 생긴 파생동사이다.

(29) a. 비록 맛당호물 조ᄎᆞ시논(37a) 權과 뫼화 가게 ᄒᆞ시논 實을 아나<月十三 37b>
b. 비록 隨宜ᄒᆞ신 權과 모도아 가게 ᄒᆞ신 實ᄋᆞᆯ 아ᅀᆞ오나(雖領隨宜之權과 會歸之實ᄒᆞᅀᆞ오나)<法華三 2b>

한편 두 문헌에서 '會'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9c)와 (29d)에서처럼 '모도다'로만 번역된다.

(29) c. 바ᄅᆞ 三乘을 ᄒᆞᆫ 게 모도시며<月十三 58a>
d. 바ᄅᆞ 三乘을 ᄒᆞᆫ ᄠᅳ데 모도샤(直則會三乘於一致ᄒᆞ샤)<法華三 55a>

<30> 미좇다 對 좇다

두 동작동사가 [追] 즉 '뒤좇다, 좇다'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0a)와 (30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 한편 '追'는 두 문헌에서 (30c)와 (30d)에서처럼 '미좇다'로만 번역된다.

(30) a. 사ᄅᆞᆷ ᄇᆞ려 ᄲᆞᆯ리 미조차 가ᄆᆞᆫ<月十三 16a>
b. 사ᄅᆞᆷ 보내야 조초ᄆᆞᆫ(遣人急追ᄂᆞᆫ)<法華二 199b>

(30) c. ᄲᆞᆯ리 미조차 ᄃᆞ려 오라 ᄒᆞ야ᄂᆞᆯ<月十三 15b>
d. ᄲᆞᆯ리 미조차 ᄃᆞ려 오라 ᄒᆞ야ᄂᆞᆯ(急追將還ᄒᆞ라 ᄒᆞ야ᄂᆞᆯ)<法華二 199a>

<31> 부르다 對 펴다

두 동작동사가 [演] 즉 '자세히 설명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1a)와 (3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1) a. 菩薩ᄃᆞᆯ 爲ᄒᆞ야 여러 불우이다 호미<月十三 28a>
b. 諸菩薩 爲ᄒᆞ야 여러 펴라 ᄒᆞ니(爲諸菩薩ᄒᆞ야 開演이라 ᄒᆞ니)<法華二 218a>

한편 두 문헌에서 '演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1c)와 (31d)에서처럼 '부르다'로만 번역된다.

(31) c. 方便으로 불어 니ᄅᆞ실 씨라<月十三 50b>
d. 方便으로 불어 니ᄅᆞ실 씨니(方便演說也ㅣ시니)<法華三 17b>

<32 > 빙다 對 흩다

두 동작동사가 [散] 즉 '뿌리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2a)와 (32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32) a. 여러 가짓 寶華ᄅᆞᆯ 비허 周遍히 淸淨ᄒᆞ리니<月十三 62b>
b. 여러 寶華ᄅᆞᆯ 흐터 두루 淸淨ᄒᆞ리라(散諸寶華ᄒᆞ야 周遍淸淨ᄒᆞ리라)<法華三 59a>

<33> ᄉᆞ랑ᄒᆞ다 對 ᄃᆞᆺ다

두 동작동사가 [慕] 즉 '사랑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3a)와 (33b) 그리고 (33c)와 (33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33) a. 져근 法 즐겨 果ᄅᆞᆯ ᄉᆞ랑ᄒᆞᆫ 後에 因 닷고ᄆᆞᆯ 가ᄌᆞᆯ비니<月十三 22a>
b. 小ᄅᆞᆯ 즐겨 果 ᄃᆞᄉᆞᆫ 後에ᅀᅡ 因 닷고ᄆᆞᆯ 가ᄌᆞᆯ비니(譬樂小ᄒᆞ야 慕果然後에ᅀᅡ 修 因ᄒᆞ니)<法華二 210a>

(33) c. 큰 法 ᄉᆞ랑케 ᄒᆞ샤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<月十三 22b>
d. 큰 法 ᄃᆞᆺ게 ᄒᆞ샤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(譬……使令慕大也ㅣ라)<法華二 210b>

<34> ᄉᆞ랑ᄒᆞ다 對 싱각ᄒᆞ다

두 동작동사가 [思惟]와 [憶] 즉 '생각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4a)와 (34b) 그리고 (34c)와 (34d)에서 잘 확인된다.

(34) a. 오(9b)직 제 ᄉᆞ랑ᄒᆞ야<月十三 10a>
b. 오직 내 ᄉᆞ랑ᄒᆞ야(但自思惟ᄒᆞ야)<法華二 189b>

(34) c. 每常 아ᄃᆞ를 싱각ᄒᆞ야<月十三 10a>
d. 미샹 제 아ᄃᆞ를 싱각ᄒᆞ며(每憶其子ᄒᆞ며)<法華二 189b>

<35> 사오납다 對 샬더럽다

두 상태동사가 [庸鄙] 즉 '상스럽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5a)와 (35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35) a. 사오나ᄫᅳᆫ 사ᄅᆞᄆᆞᆯ 달애샤<月十三 42b>
b. 샬더러운 것ᄃᆞᆯᄒᆞᆯ 달애샤(誘諸庸鄙ᄒᆞ샤)<法華三 4b>

<36> 셩가싀다 對 시들다

두 동사가 [憔悴]와 [瘦悴] 즉 '초췌하다, 수척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6a)와 (36b) 그리고 (36c)와 (36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36) a. 양지 셩가싀오 威德 업슨 두 사ᄅᆞᆯ ᄀᆞᄆᆞ니 보내요ᄃᆡ<月十三 20a>
b. ᄀᆞᄆᆞ니 두 사ᄅᆞ미 양지 시들오 威德 업스닐 보내요ᄃᆡ(密遣二人이 形色이 憔悴ᄒᆞ고 無威德者호ᄃᆡ)<法華二 206a>

(36) c. 셩가싀오 드틀 무두믄<月十三 22b>
d. 시들며 듣글 무두믄(瘁悴塵坌은)<法華二 210b>

<37> 애와티다 對 츠기 너기다

두 동작동사가 [恨] 즉 '한탄하다, 한스럽게 여기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7a)와 (37b) 그리고 (37c)와 (37d)에서 잘 확인된다.

(37) a. ᄉᆞ랑ᄒᆞ야 뉘으츠며 애와티ᄆᆞᆫ<月十三 10b>
b. ᄉᆞ랑ᄒᆞ야 뉘으처 츠기 너교ᄆᆞᆫ(思惟悔恨者ᄂᆞᆫ)<法華二 190a>

(37) c. 이젯 機 큰 게 믈로ᄆᆞᆯ 애와티샤미라<月十三 10b>
d. 오ᄂᆞᆳ 機ㅣ 큰 게 믈루믈 츠기 너기실 씨라(恨今之機ㅣ 恨大也ㅣ라)<法華二 190a>

<38> 애왇브다 對 측ᄒᆞ다

두 상태동사가 [恨] 즉 '恨스럽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8a)와 (38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38) a. 제 ᄉᆞ랑ᄒᆞ야 ᄆᆞᅀᆞ매 뉘읏브며 애왇부ᄆᆞᆯ 머거<月十三 10a>
b. 내 ᄉᆞ랑ᄒᆞ야 ᄆᆞᅀᆞ매 뉘읏븐 측ᄒᆞᆫ ᄠᅳ들 머그며(自思惟ᄒᆞ야 心懷悔恨ᄒᆞ며)<法華二 189b>

<39> 어득ᄒᆞ다 對 어듭다

두 상태동사가 [昏] 즉 '어둡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9a)와 (39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39) a. 부톄 二乘 아ᄃᆞ리 五道애 오래 ᄲᅥ디여 性 비ᄒᆞ시 어듭고 넏가바 어루 큰 일 몯니르리로다 念ᄒᆞ샤ᄆᆞᆯ 가ᄌᆞ비니라<月十三 10b>

b. 부톄 二乘 아ᄃᆞ리 五道애 오래 ᄲᅥ듀믈 念ᄒᆞ샤ᄃᆡ 性 비ᄒᆞ시 어듭고 넏가와 큰 法 니ᄅᆞ디 몯ᄒᆞ샤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(譬佛이 念二乘之子ㅣ 久淪五道ᄒᆞ샤ᄃᆡ 性習이 昏淺ᄒᆞ야 未堪說大也ㅣ라)<法華二 190a>

<40> 얼믜다 對 성긔다

두 상태동사가 [疏] 즉 '성기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0a)와 (4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40) a. 얼믠 그므를 디허도 ᄉᆡ디 아니ᄒᆞ며<月十三 59b>

b. 성긘 그므레 ᄃᆞᆯ여도 ᄉᆡ디 아니ᄒᆞ며(懸疏網而不漏ᄒᆞ며)<法華三 56a>

<41> 얽ᄆᆡ여다 對 ᄆᆡ이다

'얽다'의 어간 '얽-'과 'ᄆᆡ여다'의 어간 'ᄆᆡ여-'의 非統辭的 合成인 '얽ᄆᆡ여다'가 'ᄆᆡ이다'와 [縛] 즉 '얽매이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1a)와 (4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41) a. 受苦 얽ᄆᆡ요ᄆᆞᆯ 여희여<月十三 5a>

b. 여러 가짓 受苦 ᄆᆡ요ᄆᆞᆯ 여희여(離諸苦縛ᄒᆞ야)<法華二 180b>

'얽ᄆᆡ여다'의 異形態인 '얽ᄆᆡ이다'도 'ᄆᆡ이다'와 [縛] 및 [結縛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1c)와 (41d) 그리고 (41e)와 (41f)에서 잘 확인된다.

(41) c. 生死ᄅᆞᆯ 受苦 얽ᄆᆡ유ᄆᆞᆯ 사ᄆᆞᆯ씨<月十三 17a>

d. 生死로 受(201b)苦 ᄆᆡ요ᄆᆞᆯ 사ᄆᆞᆯ씨(以生死로 爲苦縛故로)<法華二 202a>

(41) e. 한 얽미욤 여희요미 安이오<月十三 49a>
f. 한 미요물 여흴 씨 니(16a)ᄅᆞ샨 安이오(離衆結縛曰安이오)<法華三 16b>

한편 두 문헌에서 '縛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1g)와 (41h)에서처럼 '얽미여다'와 그것의 이형태인 '얽미이다'로 번역되어 있다.

(41) g. 解脫相은 諸法에 얽미여디 아니홀 씨오<月十三 53b>
h. 解脫相은 諸法에 얽미이디 아니홀 씨오(解脫相은 則不縛諸法이오)<法華三 24b>

<42> 염글다 對 여믈다

두 동작동사가 [實] 즉 '여물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2a)와 (42b) 그리고 (42c)와 (42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42) a. 곳과 여름괘 퍼디며 염그ᄂᆞ니<月十三 46b>
b. 곳과 實果괘 프며 여므ᄂᆞ니(華果ㅣ 敷實ᄒᆞᄂᆞ니)<法華三 11b>

(42) c. 여름 열리도 염글에 ᄒᆞ야<月十三 47a>
d. 여름 ᄃᆞ외리도 여믈에 ᄒᆞ야(使……爲果로 實ᄒᆞ야)<法華三 12b>

<43> 우기 누르다 對 다왇다

두 동작동사가 [逼迫] 즉 '강제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3a)와 (43b) 그리고 (43c)와 (43d)에서 잘 확인된다.

(43) a. 시혹 우기 눌러<月十三 13a>
b. 시혹 다와도물 보아(或見逼迫은)<法華二 194b>

(43) c. 시혹 우기 누르리라 호ᄆᆞᆫ<月十三 15a>
d. 시혹 다와도ᄆᆞᆯ 보ᄆᆞᆫ(或見逼迫은)<法華二 197b>

한편 두 문헌에서 '逼迫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3e)와 (43f)에서처럼 '다완다'로만 번역된다.

(43) e. 根이어나 境이어나 어긔여 다와ᄃᆞ며<月十三 33a>
f. 根과 境괘 어긔며 다와ᄃᆞᆯ 씨니(若根若境이 乖違逼迫이니)<法華二 228a>

<44> 이긔다 對 이기다

두 동사가 [堪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4a)와 (44b)에서 잘 확인된다.

(44) a. ᄠᅳ디 사오나ᄫᅡ 大乘 이긔디 몯호ᄆᆞᆯ 아ᄅᆞ실ᄊᆡ 權으로 쉬우샤ᄆᆞᆯ 가줄비니라<月十三 19b>
b. ᄠᅳ듸 사오나와 大乘을 難히 이길 ᄯᆞᆯ 아ᄅᆞ실ᄊᆡ 權으로 쉬우샤ᄆᆞᆯ 가줄비니라(譬知其志劣ᄒᆞ야 難堪大乘故로 權息之也ᄒᆞ니라)<法華二 204b>

<45> 일틀이다 對 잃다

두 동작동사가 [漏失] 즉 '잃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5a)와 (4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45) a. 더욱 ᄆᆞᅀᆞᄆᆞᆯ ᄡᅥ 일틀유미 업게 ᄒᆞ라<月十三 28a>
b. 더 ᄆᆞᅀᆞᆷ ᄡᅥ 일홈 업게 ᄒᆞ라(宜加用心ᄒᆞ야 無令漏失ᄒᆞ라)<法華二 218b>

<46> 일홈 짛다 對 일홈 짓다

두 동작동사가 [作字] 즉 '이름 짓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6a)와 (46b) 그리고 (46c)와 (46d)에서 잘 확인된다.

(46) a. 卽時예 長者ㅣ 고텨 일훔 지허<月十三 25a>
b. 즉재 長者ㅣ 다시 일훔 지ᅀᅥ(卽時長者ㅣ 更與作字ᄒᆞ야)<法華二 213b>

(46) c. 다시 일훔 지ᄒᆞ문<月十三 25b>
d. 다시 일훔 지ᅀᅩ몬(更與作字ᄂᆞᆫ)<法華二 214a>

<47> 잇그다 對 그ᅀᅳ다

두 동작동사가 [牽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7a)와 (47b) 그리고 (47c)와 (47d)에서 잘 확인된다.

(47) a. 구틔여 잇거 ᄃᆞ려 오거ᄂᆞᆯ<月十三 16b>
b. 굿 ᄀᆞᆺ어 ᄃᆞ려 도라오거ᄂᆞᆯ(强牽將還이어ᄂᆞᆯ)<法華二 200b>

(47) c. 時急히 자바 구틔여 잇구몬<月十三 17a>
d. 時急히 자바 굿 ᄀᆞᆺ오몬(急執而强牽은)<法華二 202a>

<48> 잇브다 對 ᄀᆞᆺ브다

두 상태동사가 [疲懈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8a)와 (48b)에서 잘 확인된다. 두 상태동사는 각각 '잊다'와 'ᄀᆞᆺ다'에서 파생된 것이다.

(48) a. 내 그제 座애 이셔 모미 잇버<月十三 4a>
b. 내 그제 座애 이셔 모미 ᄀᆞᆺ바(我ㅣ 時예 在座ᄒᆞ야셔 身體疲懈ᄒᆞ야)<法華二 179a>

<49> ᄌᆞ라다 對 길다

두 동작동사가 [增長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9a)와 (49b)에서 잘 확인된다.

(49) a. 이 일후미 藥草ㅣ 各各 ᄌᆞ람 得호미라 ᄒᆞ샤미 이라<月十三 38b>
b. 이 일후미 藥草ㅣ 各各 기루믈 得호미라 ᄒᆞ샤미 이라(是名藥草ㅣ 各得增長이라 ᄒᆞ샤미 是也ㅣ라)<法華三 3b>

<50> 퍼디다 對 프다

두 동작동사가 [敷] 즉 '퍼지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0a)와 (5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50) a. 곳과 여름괘 퍼디며 염그ᄂᆞ니<月十三 46b>
b. 곳과 果實괘 프며 여므ᄂᆞ니(華果ㅣ 敷實ᄒᆞᄂᆞ니)<法華三 11b>

(50) c. 곳 프리도 프며<月十三 47a>
d. 곳 ᄃᆞ외리로 프며(爲花者로 敷ᄒᆞ며)<法華三 12b>

<51> 하다 對 만ᄒᆞ다

두 상태동사가 [衆多]와 [多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1a)와 (51b) 그리고 (51c)와 (51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51) a. 商估 賈客이 ᄯᅩ 甚히 하더니<月十三 8a>
b. 商估와 賈客이 ᄯᅩ 甚히 만터니(商估賈客이 亦甚衆多ᄒᆞ더니)<法華二 186a>

(51) c. 사ᄅᆞ미 法 자본 病이 하거늘<月十三 27a>
d. 사ᄅᆞ미 法 자본 病이 만ᄒᆞᆯ씨(人多法執之病ᄒᆞᆯ씨)<法華二 217b>

한편 두 문헌에서 '多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2e)와 (52f)에서처럼 '하다'로만 번역된다.

(51) e. 또 하며 져구미 잇ᄂᆞ니<月十三 27b>
f. 또 하며 져그며(又有多少ᄒᆞ며)<法華二 218a>

그리고 두 문헌에서 '多'와 '衆多'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1g)와 (51h) 그리고 (51i)와 (51j)에서처럼 '만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51) g. 天人이 만ᄒᆞ며<月十三 72a>
h. 天人ᄃᆞᆯ히 만ᄒᆞ며(多諸天人ᄒᆞ며)<法華三 78a>

(51) i. 商賈ㅣ 만타 ᄒᆞ니<月十三 9a>
j. 商賈ㅣ 만타 ᄒᆞ니(曰商賈ㅣ 多衆ㅣ라 ᄒᆞ니)<法華二 187b>

그리고 두 문헌에서 '弘多'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1k)와 (51l)에서처럼 '만ᄒᆞ다'와 '하다'로 번역되어 있다.

(51) k. 得혼 거시 만호라 ᄒᆞ다니<月十三 34a>
l. 得호미 하라 ᄒᆞ다니(所得이 弘多ㅣ라 ᄒᆞ다니)<法華二 229a>

<52> ᄒᆞ야ᄇᆞ리다 對 헐다

두 동작동사가 [破] 즉 '헐어 버리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2a)와 (52b) 그리고 (52c)와 (52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52) a. 色心을 처섬 ᄒᆞ야ᄇᆞ리면 萬法이 다 뷔며<月十三 65b>
b. 色心을 처섬 허린 萬法이 다 뷔다가(色心을 初破ᄒᆞ얀 萬法이 皆空ᄒᆞ

다가)<法華三 67b>

(52) c. 色心을 처섬 ᄒᆞ야ᄇᆞ료미라<月十三 66a>
d. 色心을 처섬 허루미오(色心初破ㅣ오)<法華三 67b>

Ⅱ.3. 冠形詞에서의 同義

고유어의 冠形詞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는 [餘]를 뜻하는 '녀느'와 '녀나ᄆᆞᆫ'을 비롯하여 [餘] 즉 '다른'의 뜻을 가진 '다ᄅᆞᆫ'과 '년' 그리고 [小]를 뜻하는 '죠고맛'과 '져근'이 있다.

<1> 녀느 對 녀나ᄆᆞᆫ

두 관형사가 [餘] 즉 '다른, 나머지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네 이런 왼 일ᄃᆞᆯ히 녀느 일흔 사ᄅᆞᆷ 곧(24b)호ᄆᆞᆯ 갌간도 몯 보리로소니<月十三 25a>
b. 너의 이 여러가짓 惡 이슈미 녀나ᄆᆞᆫ 짓는 사ᄅᆞᆷ 곧호ᄆᆞᆯ 다 몯 보노니(都不見汝의 有此諸惡이 如餘作人ᄒᆞ노니)<法華二 213b>

<2> 다ᄅᆞᆫ 對 년

상태동사 '다ᄅᆞ다'의 관형사형 '다ᄅᆞᆫ'이 관형사 '년'과 [餘] 즉 '다른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) a. 네 샹녜 이에서 일ᄒᆞ고 다ᄅᆞᆫ ᄃᆡ 가디 말라<月十三 23a>
b. 네 샹녜 이를 짓고 ᄂᆞ외 년 ᄃᆡ 가디 말라(汝ㅣ 常此作ᄒᆞ고 勿復餘去ᄒᆞ

라)<法華二 211b>

<3> 죠고맛 對 져근

관형사 '죠고맛'이 상태동사 '젹다'의 관형사형인 '져근'과 [小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) a. 혼갓 죠고맛 利를 가져<月十三 11a>
b. 혼갓 져근 利를 가지논 디라(徒取小利라)<法華二 191b>

한편 '小'는 두 문헌에서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c)와 (3d)에서처럼 '져근'으로만 번역된다.

(3) c. 져근 이를 즐기논 젼치라<月十三 11b>
d. 져근 法 즐교물 爲혼 젼치라(爲樂小故ㅣ라<法華二 191b>

Ⅱ.4. 副詞에서의 同義

고유어의 副詞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는 形式的 관점에서 相異한 것과 相似한 것이 있다. 相異한 것에는 [卽]의 뜻을 가진 '곧'과 '즉재'를 비롯하여 [强]을 뜻하는 '구틔여'와 '굿', [往昔]의 뜻을 가진 '녜'와 '아릐', [但]을 뜻하는 '다몬'과 '오직', [已]의 뜻을 가진 '불써'와 'ᄒᆞ마' 그리고 [先]을 뜻하는 '아래'와 '몬져' 등이 있다. 相似한 것에는 [可]의 뜻을 가진 '어로'와 '어루' 그리고 [復]을 뜻하는 'ᄂᆞ외야'와 'ᄂᆞ외'가 있다.

<1> ᄀᆞᄆᆞ니 對 그슴기

두 부사가 [竊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

인 (1a)와 (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ᄀᆞᄆᆞ니 너교ᄃᆡ<月十三 12b>
b. 그ᄉᆞ기 이 念을 호ᄃᆡ (竊作是念호ᄃᆡ)<法華二 194b>

<2> ᄀᆞ장 對 키

두 부사가 [大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) a. ᄒᆞᄅᆞᆺ 갑ᄉᆞᆯ ᄀᆞ장 得호라 ᄒᆞ야<月十三 35a>
b. ᄒᆞᄅᆞᆺ 갑ᄉᆞᆯ 키 得호라 코(一日之價ᄅᆞᆯ 以爲大得ᄒᆞ고)<法華二 230b>

<3> 것ᄆᆞᄅᆞ 對 답ᄶᅥ(닶겨)

부사 '것ᄆᆞᄅᆞ'가 동사 '답ᄭᅵ다/닶기다'의 부사형 '답ᄶᅥ/닶겨'와 [悶] 즉 '기절하여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 그리고 (3c)와 (3d)에서 잘 확인된다.

(3) a. 것ᄆᆞᄅᆞ 주거 ᄯᅡ해 디거ᄂᆞᆯ<月十三 16b>
b. 답ᄶᅥ 주(200b)거 ᄯᅡ해 디거늘(悶絶躃地커ᄂᆞᆯ)<法華二 201a>

(3) c. 아ᄃᆞ리 놀라 것ᄆᆞᄅᆞ 주그니<月十三 16b>
d. 아ᄃᆞ리 놀라 닶겨 주고ᄆᆞᆫ(子ㅣ 驚悶絶은)<法華二 201b>

<4> 곧 對 즉재

두 부사가 [卽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a)와 (4b) 그리고 (4c)와 (4d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4) a. 곧 두리본 ᄆᆞᅀᆞᄆᆞᆯ 머거 예 온 이ᄅᆞᆯ 뉘으처<月十三 12b>
b. 즉재 두리요ᄆᆞᆯ 머거 이에 오ᄆᆞᆯ 뉘으처(卽懷恐怖ᄒᆞ야 悔來至此ᄒᆞ야)<法華二194b>

(4) c. 곧 ᄇᆞᆯ기 니르디 아니ᄒᆞ실ᄊᆡ<月十三 57a>
d. 즉재 ᄇᆞᆯ기 니ᄅᆞ디 아니ᄒᆞ실ᄊᆡ(不卽明說ᄒᆞ실ᄊᆡ 故로)<法華三 30b>

한편 두 문헌에서 '卽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e)와 (4f)에서처럼 '즉재'로만 번역된다.

(4) e. 즉재 겨틧 사ᄅᆞᄆᆞᆯ 보내야<月十三 15b>
f. 즉재 겨틧 사ᄅᆞᆷ 보내야(卽遣傍人ᄒᆞ야)<法華二 199a>

<5> 골오 對 ᄒᆞᆫ가지로

두 부사가 [等] 즉 '고로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a)와 (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5) a. 골오 ᄇᆞᆺ디 몯ᄒᆞ며<月十三 45b>
b. 能히 ᄒᆞᆫ가지로 ᄇᆞᆺ디 몯ᄒᆞ고(不能等澍ᄒᆞ고)<法華三 10b>

<6> 구틔여 對 굿

두 부사가 [强] 즉 '억지로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a)와 (6b) 그리고 (6c)와 (6d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6) a. 時急히 자비 구틔여 잇구ᄆᆞᆫ<月十三 17a>
b. 時急히 자비 굿 긋오ᄆᆞᆫ(急執而强牽은)<法華二 202a>

(6) c. 구틔여 敎化ᄒᆞ샤ᄆᆞᆯ 가ᄌᆞᆯ비고<月十三 17a>

d. 굿 化ᄒᆞ샤ᄆᆞᆯ 가줄비고(譬……强化ᄒᆞ고)<法華二 202a>

<7> ᄂᆞ외야 對 ᄂᆞ외

'ᄂᆞ외다'의 語幹 'ᄂᆞ외-'와 副詞形語尾 '-야'의 結合인 'ᄂᆞ외야'가 어간 'ᄂᆞ외-'의 零變化에 의한 전성 부사인 'ᄂᆞ외'와 [復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7a)와 (7b)에서 잘 확인된다.

(7) a. 내 네 아비 ᄀᆞᆮᄒᆞ니 ᄂᆞ외야 시름 말라<月十三 23b>
b. 내 네 아비 ᄀᆞᆮᄒᆞ니 ᄂᆞ외 분별 말라 (我如汝父호니 勿復憂慮ᄒᆞ라)<法華二 211b>

한편 두 문헌에서 '復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7c)와 (7d) 그리고 (7e)와 (7f)에서처럼 'ᄂᆞ외야'로만 번역된다.

(7) c. 阿耨多羅三藐三菩提ᄅᆞᆯ ᄂᆞ외야 求티 아니타이다<月十三 4a>
d. 阿耨多羅三藐三菩提ᄅᆞᆯ ᄂᆞ외야 求티 아니타이다(不復進求阿耨多羅三藐三菩提ᄒᆞ다이다) <法華二 178a>

(7) e. ᄂᆞ외야 分別 업스리로다 ᄒᆞ더니<月十三 10b>
f. ᄂᆞ외야 시름 업스리로다 터니(無復憂慮ㅣ로다 터니)<法華二 189b>

<8> 녜 對 아ᄅᆡ

두 부사가 [往昔]과 [昔曾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a)와 (8b) 그리고 (8c)와 (8d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8) a. 世尊이 녜 說法을 오래 커시ᄂᆞᆯ<月十三 4a>
b. 世尊이 아ᄅᆡ 說法을 ᄒᆞ마 오래 커시ᄂᆞᆯ(世尊이 往昔에 說法旣久ㅣ 어시ᄂᆞᆯ)<法華二 179a>

(8) c. 아뤼 敎化ᄒᆞ시다가 後에 도로 믈러 겨샤ᄆᆞᆯ 가줄비고)<月十三 8b>
d. 녜 敎化ᄒᆞ야시늘 後에 도로 믈러듀믈 가줄비니라(譬昔曾敎化ㅣ어시놀 後還退墮也ㅣ라)<法華二 187a>

한편 두 문헌에서 '在昔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8e)와 (18f)에서처럼 '녜'로만 번역된다.

(8) e. 녜 迷惑ᄒᆞ야 ᄭᅥ디여 잇다가<月十三 9b>
f. 녜 몰라 ᄲᅥ디엣다가(在昔迷淪ᄒᆞ얫다가)<法華二 188b>

<9> 다ᄆᆞᆫ 對 오직

두 부사가 [但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a)와 (9b)에서 잘 확인된다.

(9) a. 다ᄆᆞᆫ 小法을 즐기다니<月十三 36a>
b. 오직 져근 法 즐기다니(但樂小法ᄒᆞ다니)<法華二 231b>

한편 두 문헌에서 '但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c)와 (9d) 그리고 (9e)와 (9f)에서처럼 '오직'으로만 번역된다.

(9) c. 오(9b)직 제 ᄉᆞ랑ᄒᆞ야<月十三 10a>
d. 오직 내 ᄉᆞ랑ᄒᆞ야(但自思惟ᄒᆞ야)<法華二 189b>

(9) e. 오직 덟디 아니ᄒᆞ며 기우디 아니호미<月十三 14a>
f. 오직 더럽디 아니ᄒᆞ며 기우디 아니호ᄆᆞ로(但以不染不偏으로)<法華二 197a>

두 문헌에서 '唯'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g)와 (9h) 그리고 (9i)와 (9j)에서처럼 '오직'으로만 번역된다.

(9) g. 오직 一乘을 니ᄅᆞ시ᄂᆞ니<月十三 36b>
h. 오직 一乘을 니ᄅᆞ시고(唯說一乘ᄒᆞ시고)<法華二 232a>

(9) i. 오직 뎌ᄂᆞᆫ 오직 져근 이ᄅᆞᆯ 즐겨<月十三 5b>
j. 오직 뎨 오직 小ᄅᆞᆯ 즐겨(彼唯樂小ᄒᆞ야)<法華二 180b>

<10> 답다비 對 답겨

부사 '답다비'가 동사 '답기다'의 부사형 '답겨'와 [悶然] 즉 '답답하게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0a)와 (1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0) a. 이러호ᄆᆞ로 먹뎡이 ᄀᆞᆮᄒᆞ며 버워리 ᄀᆞᆮᄒᆞ야 답다비 모ᄅᆞᆯ씨<月十三 18b>
b. 일로브터 귀 머근 ᄃᆞᆺ 입 버운 ᄃᆞᆺᄒᆞ야 답겨 아디 몯ᄒᆞᆯ씨(由是로 如聲若啞ᄒᆞ야 悶然不解故로)<法華二 202a>

<11> 당다이 對 반ᄃᆞ기

두 부사가 [必] 즉 '반드시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1a)와 (11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1) a. 당다이 주그리로다 ᄒᆞ니라<月十三 4a>
b. 닐오ᄃᆡ 이 반ᄃᆞ기 一定히 주그리로다 ᄒᆞ니(云此ㅣ 必定死ㅣ라 ᄒᆞ니)<法華二 202a>

<12> 더욱 對 더

두 부사가 [逾]와 [加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a)와 (12b) 그리고 (12c)와 (12d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12) a. 使(16a)者ㅣ 더욱 急히 자바<月十三 16b>
b. 使者ㅣ 자보디 더 急히 ᄒᆞ야(使者ㅣ 執之逾急ᄒᆞ야)<法華二 200b>

(12) c. 더욱 ᄆᆞᅀᆞᆷ 뼈 일틀유미 업게 ᄒᆞ라<月十三 28a>
d. 더 ᄆᆞᅀᆞᆷ 뼈 일흠 업게 ᄒᆞ라(宜加用心ᄒᆞ야 無令漏失ᄒᆞ라)<法華二 218b>

한편 두 문헌에서 '加'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e)와 (12f)에서처럼 '더욱'으로만 번역된다.

(12) e. 더욱 ᄆᆞᅀᆞᆷ 쓰라(28a) ᄒᆞ니라<月十三 28b>
f. 더욱 ᄆᆞᅀᆞᆷ 쓰미 맛당ᄒᆞ니라(宜加用心이니라)<法華二 219a>

<13> 또 對 다시

두 부사가 [復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3a)와 (1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3) a. 그ᄢᅴ 世尊이 또 比丘衆ᄃᆞ려 니ᄅᆞ샤ᄃᆡ<月十三 67b>
b. 그ᄢᅴ 世尊이 다시 諸比丘衆ᄃᆞ려 니ᄅᆞ샤ᄃᆡ(爾時世尊이 復告諸比丘衆ᄒᆞ샤ᄃᆡ)<法華三 74a>

한편 두 문헌에서 '復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3c)와 (13d)에서처럼 '또'로만 번역된다.

(13) c. 또 二萬億佛을 供養ᄒᆞᅀᆞᄫᆞᆫ뎌<月十三 69a>
d. 반ᄃᆞ기 또 二萬億佛을 供養호ᄃᆡ(當復供養二萬億佛호ᄃᆡ)<法華三 74b>

<14> 또 對 시혹

두 부사가 [或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4a)와 (14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4) a. 또 慧命이라 ᄒᆞᄂᆞ니<月十三 3a>
b. 시혹 慧命이라 니ᄅᆞᄂᆞ니(或曰慧命이니)<法華二 176b>

<15> 만히 對 해

두 부사가 [多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5a)와 (15b)에서 잘 확인된다. '만히'는 '만ᄒᆞ다'에서 파생된 부사이고 '해'는 '하다'에서 파생된 부사이다.

(15) a. 天人이 만히 이시며<月十三 70a>
b. 天人이 해 이시며(多有天人ᄒᆞ며)<法華三 75a>

<16> 불써 對 ᄒᆞ마

두 부사가 [已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6a)와 (16b) 에서 잘 확인된다.

(16) a. 船若(36a)ㅅ 時節에 불써 오로 맛디고져 ᄒᆞ시던 ᄃᆞᆯ 처ᅀᅥᆷ 아ᄉᆞ보니<月十三 36b>
b. 처ᅀᅥᆷ 아ᄉᆞ보ᄃᆡ 船若時예 ᄒᆞ마 오로 맛디고져 ᄒᆞ야신마ᄅᆞᆫ(始知船若之時예 已欲全付ㅣ어신마ᄅᆞᆫ)<法華二 232a>

한편 두 문헌에서 '已'와 '旣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6c)와 (16d), (16e)와 (16f) 그리고 (16g)와 (16h)에서처럼 'ᄒᆞ마'로만 번역된다.

(16) c. ᄒᆞᄂᆞᆫ 이ᄅᆞᆯ ᄒᆞ마 일운 時節일ᄊᆡ<月十三 58a>

d. 홇 이를 ᄒᆞ마 일운 時節일씨(所作은 已辦之時故로)<法華三 55a>

(16) e. 녯 綠이 ᄒᆞ마 니근 돌 가줄비고<月十三 15b>
f. 녯 綠이 ᄒᆞ마 니구믈 가줄비고(譬昔綠이 已熟이오)<法華二 199a>

(16) g. 나히 ᄒᆞ마 ᄌᆞ라<月十三 7a>
h. 나히 ᄒᆞ마 長大ᄒᆞ야(年旣長大ᄒᆞ야)<法華二 183b>

<17> 쉬빙 對 수이

두 부사가 [易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7a)와 (17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7) a. 옷밥 쉬빙 어드리라 호ᄆᆞᆫ<月十三 15a>
b. 옷밥 수이 어두믄(衣食易得은)<法華二 197b>

<18> 아래 對 녜

두 부사가 [昔]과 [昔曾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8a)와 (18b), 그리고 (18c)와 (18d)에서 잘 확인된다.

(18) a. 아래 本城에 이셔<月十三 29b>
b. 녜 ᄆᆞᆫ 城에 이셔(昔在本城中ᄒᆞ야)<法華二 222b>

(18) c. 내 아래 敎化홇씨<月十三 30b>
d. 내 녜 化홇씨(我ㅣ 昔曾化故로)<法華二 225a>

두 부사가 두 문헌에서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8e)와 (18f)에서처럼 정반대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. 즉 '昔者'가 『월인석보』 권13에서는 '녜'로 번역되고 『법화경언해』에서는 '아래'로 번역된다.

(18) e. 須菩提 네 空을 아라<月十三 66a>
f. 須菩提ㅣ 아래 空을 아라(須菩提ㅣ 昔者애 解空ᄒᆞ야)<法華三 67b>

<19> 아래 對 몬져

두 부사가 [先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9a)와 (19b)에서 잘 확인된다. 그리고 두 문헌에서 '先'이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9c)와 (19d)에서처럼 '몬져'로만 번역된다.

(19) a. 아래 내며 드류미<月十三 31b>
b. 몬져 내며 드료미(先所出納이)<法華二 225b>

(19) c. 몬져 아ᄅᆞ샤 <月十三 34a>
d. 몬져……아ᄅᆞ샤(先知)<法華二 229b>

<20> 아ᄅᆡ 對 몬져

두 부사가 [先來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0a)와 (20b)에서 잘 입증된다. 그리고 두 문헌에서 '先'이 '몬져'로 번역된다는 것을 (20c)에서 알 수 있다.

(20) a. 그 아비 아ᄅᆡ 아ᄃᆞᆯ 求ᄒᆞ다가 몯 어더<月十三 7b>
b. 그 아비 몬져 아ᄃᆞᆯ 求ᄒᆞ다가 몯 어더(其父ㅣ 先來예 求子不得ᄒᆞ야)<法華二 186a>

(20) c. 몬져 求ᄒᆞ다가 몯 어두믄(先求不得은)<月十三 8b><法華二 187a>

<21> 어로 對 어루

두 부사가 [可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1a)와 (21b), 그리고 (21c)와 (21d)에서 잘 확인된다.

(21) a. 어로 ᄒᆞᆫ번 變ᄒᆞ면 道애 다ᄃᆞᄅᆞᆷ ᄃᆞᆯ 가줄비니라<月十三 30b>
b. 어루 ᄒᆞᆫ번 變ᄒᆞ야 道애 가ᄆᆞᆯ 가줄비니라(譬……可一變而至道也ㅣ라)<法華二 224b>

(21) c. 어로 맛나 어더<月十三 32a>
d. 이에 어루 맛나 得ᄒᆞ야(斯可遇會得之ᄒᆞ야)<法華二 226a>

<22> 이대 對 됴히

두 부사가 [好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2a)와 (2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2) a. 이대 ᄠᅳ들 便安히 가지라<月十三 23b>
b. 됴히 네 ᄠᅳ들 便安히 너기라(好自安意ᄒᆞ라)<法華二 211b>

한편 두 문헌에서 '善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2c)와 (22d)에서처럼 '이대'로만 번역된다.

(22) c. ᄒᆞ다가 眞慈로 여러 가지로 이대 달애디 아니ᄒᆞ시면<月十三 32a>
d. ᄒᆞ다가 眞意로 한 方便으로 이대 달애디 아니ᄒᆞ시던ᄃᆡᆫ(設非眞慈로 多方善誘ㅣ던ᄃᆡᆫ)<法華二 226a>

<23> 이러트시 對 이ᄀᆞ티

두 부사가 [如是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3a)와 (2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3) a. 이러트시 念ᄒᆞ며 ᄉᆞ랑호미 잇(55b)논 ᄯᅡ히<月十三 56a>
b. 이ᄀᆞ티 念思의 住호미(如是念思所住ㅣ)<法華三 28a>

<24> ᄌᆞ조 對 ᄌᆞ로

두 부사가 [屢] 즉 '자주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4a)와 (24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4) a. ᄌᆞ조 記莂을 듣ᄌᆞ보니<月十三 59a>
b. ᄌᆞ로 記莂을 듣ᄌᆞ오시니(屢聞記莂ᄒᆞ시니)<法華三 55b>

<25> 잘 對 이대

두 부사가 [善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5a)와 (2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5) a. 비록 迦葉이 잘 니ᄅᆞ나<月十三 43a>
b. 비록 迦葉이 이대 니ᄅᆞ나(雖迦葉이 善說ᄒᆞ나)<法華三 5a>

한편 두 문헌에서 '善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5c)와 (25d)에서처럼 '이대'로만 번역된다.

(25) c. 이 如來ㅅ 眞實 功德을 이대 닐오미라<月十三 42b>
d. 이 如來ㅅ 眞實 功德 이대 술오미라(是說如來 眞實功德이라)<法華三 4b>

<26> 조쳐 對 아오로

두 부사가 [幷] 즉 '함께, 아울러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6a)와 (26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6) a. 아숨과 國王과 大臣과 刹利(29a)와 居士와 조쳐 뫼화<月十三 29b>
b. 아숨과 國王과 大臣과 刹利와 居士와 아오로 뫼화(幷會親族과 國王과 大臣과 刹利와 居士ᄒᆞ야)<法華二 222b>

<27> ᄒᆞ마 對 쟝ᄎᆞ

두 부사가 [將] 즉 '장차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7a)와 (27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7) a. ᄒᆞ마 주긇 저긔 寶藏 닐오ᄆᆞᆫ<月十三 27a>
b. 쟝ᄎᆞ 주글 ᄊᆡ 寶藏 닐오ᄆᆞᆫ(將死而語寶藏은)<法華二 217b>

한편 두 문헌에서 '將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7c)와 (27d), 그리고 (27e)와 (27f)에서처럼 '쟝ᄎᆞ'로만 번역된다.

(27) c. 化緣이 쟝ᄎᆞ ᄆᆞᄎᆞ시릴씨<月十三 27a>
d. 化緣이 쟝ᄎᆞ ᄆᆞᄎᆞ시릴씨(化緣이 將畢故로)<法華二 217b>

(27) e. 長者ㅣ 쟝ᄎᆞ 아ᄃᆞ를 달애야 혀 오리라 ᄒᆞ야<月十三 20a>
f. 長者ㅣ 쟝ᄎᆞ 제 아ᄃᆞ를 달애야 혀려 ᄒᆞ야(長者ㅣ 將欲誘引其子호려 ᄒᆞ야)<法華二 206a>

<28> ᄒᆞᆫ가지로 對 ᄀᆞ티

두 부사가 [等] 즉 '함께, 같이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8a)와 (28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8) a. 一時예 ᄒᆞᆫ가지로 브ᅀᅥ<月十三 45b>
b. ᄒᆞᆫ쁴 ᄀᆞ티 브ᅀᅥ(一時예 等澍ᄒᆞ야)<法華三 10a>

<29> ᄒᆞᆫ갓 對 ᄒᆞ올로

두 부사가 [獨] 즉 '다만, 홀로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9a)와 (29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9) a. ᄒᆞᆫ갓 藥草로 品 일훔 지호ᄆᆞᆫ<月十三 38a>
b. ᄒᆞ올로 藥草로 品 일훔 호ᄆᆞᆫ(獨以藥草로 名品者ᄂᆞᆫ)<法華三 3b>

<30> ᄒᆞᆫᄃᆡ 對 어우러

두 부사가 [共] 즉 '함께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0a)와 (3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0) a. 正히 한 魔와 ᄒᆞᆫᄃᆡ 잇븐 버디 ᄃᆞ외시니<月十三 63b>
b. 正히 한 魔와 어우러 잇븐 버디 ᄃᆞ외시니(正與衆魔와 共作勞侶ᄒᆞ시니)<法華三 61a>

한편 부사 '共'은 두 문헌에서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0c)와 (30d), 그리고 (30e)와 (30f)에서처럼 'ᄒᆞᆫᄃᆡ'로만 번역된다.

(30) c. 우리 둘토 ᄒᆞᆫᄃᆡ 호리라 ᄒᆞ라<月十三 20b>
d. 우리 두 사ᄅᆞᆷ도 ᄯᅩ 너와 ᄒᆞᆫᄃᆡ 지ᅀᅩ리라 ᄒᆞ라(我等二人도 亦共汝作호리라 ᄒᆞ라)<法華二 217b>

(30) e. 너와 ᄒᆞᆫᄃᆡ 호려 ᄒᆞ니<月十三 21a>
f. ᄯᅩ 너와 ᄒᆞᆫᄃᆡ 지ᅀᅩ리라 닐오ᄆᆞᆫ(云亦共汝作者ᄂᆞᆫ)<法華二 207a>

Ⅲ. 固有語와 漢字語 간의 同義

두 문헌에서 확인되는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동의 관계는 名詞類, 動詞類, 副詞 및 感歎詞에서 고찰될 수 있다.

Ⅲ.1. 名詞類에서의 同義

<1> 가온ᄃᆡ 對 中

두 명사가 [中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에서 잘 확인된다. 한자어 '中'에 해당하는 고유어 '가온ᄃᆡ'의 존재는 『월인석보』 권13에서의 '適中'의 주석에서 명백하게 확인된다.

(1) a. 諸法에 골오 適中케 ᄒᆞ샤미라 [適中은 기우디 아니ᄒᆞ야 가온ᄃᆡ 마ᄌᆞᆯ 씨라]<月十三 24b>
b. 諸法에 골아 中에 맛게 ᄒᆞᆯ 씨라(使於諸法에 均調適中也ㅣ라)<法華二 212a>

<2> 그듸내 對 諸君

고유어 '그듸내'가 한자어 '諸君'과 [諸君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) a. 펴 닐오ᄃᆡ 그듸내 알라<月十三 29b>
b. 즉재 제 펴 닐오ᄃᆡ 諸君이 반ᄃᆞ기 알라(卽自宣言호ᄃᆡ 諸君이 當知ᄒᆞ라)<法華二 222b>

<3> 글 對 文

고유어 '글'이 한자어 '文'과 [文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

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) a. 이 三乘 가줄비신 그리 남기 兼커늘<月十三 38a>
b. 이는 三乘 가줄비샤 文이 樹木이 兼ᄒᆞ샤ᄃᆡ(此는 譬三乘이샤 文兼樹木ᄒᆞ샤ᄃᆡ)<法華三 3b>

<4> 글 對 文字

고유어 '글'이 한자어 '文字'와 [文字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a)와 (4b)에서 잘 확인된다.

(4) a. 이는 알핏 그를 牒ᄒᆞ샤ᄃᆡ(此는 牒前文ᄒᆞ샤ᄃᆡ)<法華三 30b>
b. 이는 前엣 文字ᄅᆞᆯ 다시 ᄒᆞ시니<月十三 57b>

<5> 나모 對 樹木

고유어 '나모'가 한자어 '樹木'과 [樹木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a)와 (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5) a. 이 三乘 가줄비신 그리 남기 兼커늘<月十三 38a>
b. 이는 三乘 가줄비샤 文이 樹木이 兼ᄒᆞ샤ᄃᆡ(此는 譬三乘이샤 文兼樹木ᄒᆞ샤ᄃᆡ)<法華三 3b>

<6> 도죽 對 盜賊

두 명사가 [賊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a)와 (6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6) a. 二乘은 煩惱ᄅᆞᆯ 怨讎ㅅ 盜賊 사ᄆᆞᆯ씨 怨讎ㅣ라 ᄒᆞ니라<月十三 17a>

b. 二乘은 煩惱로 寃讎ㅅ 도ᄌᆞᆨ 사ᄆᆞᆯ씨 怨讎ㅣ여 일ᄏᆞᆯ고(二乘은 以煩惱로 爲寃賊故로 稱怨也ᄒᆞ고)<法華二 201b>

<7> ᄆᆞᄅᆞ 對 要

고유어 'ᄆᆞᄅᆞ'가 한자어 '要'와 [要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7a)와 (7b)에서 잘 확인된다.

(7) a. ᄆᆞᆯ를 得디 몯ᄒᆞ야(不得其要ᄒᆞ야)<法華二 210b>
b. 그 要를 得디 몯ᄒᆞ야<月十三 23a>

<8> ᄆᆞᅀᆞᆷ 對 心地

두 명사가 [心地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a)와 (8b)에서 잘 입증된다. 두 문헌에서 '心地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c)와 (8d)에서처럼 '心地'로만 번역된다.

(8) a. 煩惱惑業이 ᄆᆞᅀᆞᆷ 더러ᄫᅦ거든<月十三 21a>
b. 煩惱惑業이 心地를 더러엣거든(煩惱惑業이 糞穢心地어든)<法華二 207a>

(8) c. 衆生ᄋᆡ 心地를 莊嚴ᄒᆞ샤미라<月十三 14b>
d. 衆生ᄋᆡ 心地 ᄉᆡᆨᄉᆡᆨ게 ᄒᆞ샤미라(嚴衆生心地也ㅣ라)<法華二 197a>

<9> ᄆᆞᄎᆞᆷ 對 乃終

고유어 'ᄆᆞᄎᆞᆷ'이 한자어 '乃終'과 [終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a)와 (9b), 그리고 (9c)와 (9d)에서 잘 확인된다. 'ᄆᆞᄎᆞᆷ'은 語根 'ᄆᆞᆺ-'과 명사 형성 접미사 '-ᄋᆞᆷ'의 결합으로 생긴 轉成名詞이다.

(9) a. ᄆᆞᄎᆞ매 空애 가ᄂᆞ니<月十三 56a>
b. 내죵애 뷔요매 도라가니(終歸於空ᄒᆞ니)<法華三 29b>

한편 두 문헌에서 '終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c)와 (9d)에서처럼 '乃終, 내죵'으로 번역된다.

(9) c. 乃終내 四生五道애 뷔듣녀 窮困ᄒᆞ리니<月十三 32a>
d. 내죵애 迨嬗ᄒᆞ야 四生五道애 窮困ᄒᆞ리러니(終則迨嬗ᄒᆞ야 窮困於四生五道ᄒᆞ리러니)<法華二 226a>

<10> 목숨 對 命

고유어 '목숨'이 한자어 '命'과 [命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0a)와 (10b)에서 잘 입증된다.

(10) a. 五道애 困ᄒᆞ야 四生애 ᄃᆞ녀 목숨 사로ᄆᆞᆯ 가ᄌᆞᆯ비고<月十三 7a>
b. 五道애 困ᄒᆞ며 四生애 디나 제 命을 살오ᄆᆞᆯ 가ᄌᆞᆯ비고(譬困五道ᄒᆞ며 歷四生ᄒᆞ야 以自活命이오)<法華二 184a>

<11> 목숨 對 壽命

고유어 '목숨'이 한자어 '壽命'과 [壽命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1a)와 (11b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11) a. 부텻 목숨 니ᅀᅳ리 업슨 ᄃᆞᆯ 시름ᄒᆞ샤미라<月十三 10b>
b. 부텻 壽命 니ᅀᅳ리 업수ᄆᆞᆯ 시름ᄒᆞ실 씨라(憂其無以續佛壽命也ㅣ라)<法華二 190a>

<12> 보ᄇᆡ 對 珍寶

두 명사가 [珍寶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a)와 (12b)에서 잘 입증된다.

(12) a. 金銀珍寶ㅣ 倉庫애 ᄀᆞᄃᆞᆨᄒᆞ야 넙듀ᄃᆡ<月十三 10a>
b. 金銀 보ᄇᆡ 倉庫애 ᄀᆞᄃᆞᆨᄒᆞ야 넙듀ᄃᆡ(金銀珍寶ㅣ 倉庫애 盈溢호ᄃᆡ)<法華二 189b>

<13> 손 對 客

고유어 '손'이 한자어 '客'과 [客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3a)와 (1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3) a. 손ᄌᆡ 네 ᄀᆞ티 소ᄂᆞ로 짓ᄂᆞᆫ 賤人이로라 제 너길ᄊᆡ(猶故自謂客作賤人이로라 홀ᄊᆡ)<法華二 214b>
b. 손ᄌᆡ 제 너교ᄃᆡ 客ᄋᆞ로 와 일ᄒᆞᄂᆞᆫ 賤人이로라 ᄒᆞ더니<月十三 25b>

<14> 시름 對 分別

두 명사가 [憂慮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4a)와 (14b)에서 잘 입증된다.

(14) a. ᄂᆞ외야 시름 업스리로다 터니(無復憂慮ㅣ로다 터니)<法華二 189b>
b. ᄂᆞ외야 分別 업스리로다 ᄒᆞ더니<月十三 10a>

<15> 아ᄃᆞᆯ 對 子息

고유어 '아ᄃᆞᆯ'이 한자어 '子息'과 [子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5a)와 (1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5) a. 아비 ᄆᆡ샹 아ᄃᆞᆯ 念홈ᄃᆞᆯᄒᆞᆫ(父ㅣ 每念子等者ᄂᆞᆫ)<法華二 190a>
b. 아비 每常 子息 念홈ᄃᆞᆯᄒᆞᆫ<月十三 10b>

<16> 앒 對 前

고유어 '앒'이 한자어 '前'과 [前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6a)와 (16b), 그리고 (16c)와 (16d)에서 잘 확인된다.

(16) a. 알ᄑᆡ 一相 一(30a)味 等文을 牒ᄒᆞ샤(牒前엣 一相一味等文ᄒᆞ샤)<法華三 30b>
b. 前엣 ᄒᆞᆫ 相 ᄒᆞᆫ 맛 等文을 다시 ᄒᆞ샤<月十三 57a>

(16) c. 알ᄑᆡᆫ 正智ᄅᆞᆯ 브트샤 니ᄅᆞ시고(前은 依正智ᄒᆞ샤 言ᄒᆞ시고)<法華三 30b>
d. 前엔 正智ᄅᆞᆯ 브터 니ᄅᆞ시고<月十三 57b>

<17> 여름 對 果實

고유어 '여름'이 한자어 '果實'과 [果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7a)와 (17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7) a. 곶과 여름괘 퍼디여 염그ᄂᆞ니<月十三 46b>
b. 곶과 果實왜 프며 여므ᄂᆞ니(草果ㅣ 敷實ᄒᆞᄂᆞ니)<法華三 11b>

한편 두 문헌에서 '果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7c)와 (17d)에서처럼 '여름'으로만 번역된다.

(17) c. 여름 열리도 염글게 ᄒᆞ야<月十三 47a>
d. 여름 ᄃᆞ외리도 여믈에 ᄒᆞ야(使……爲果者로 實ᄒᆞ야)<法華三 12b>

<18> 원틔 對 怨讎

고유어 '원틔'가 한자어 '怨讎'와 [怨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8a)와 (18b)에서 '稱怨'의 '怨'이 '怨讎'로 번역되고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8c)와 (18d)에서 '稱怨'의 '怨'이 각각 '怨讎'와 '원틔'로 번역된다는 데서 잘 확인된다.

(18) a. 窮子ㅣ 놀라 怨讎ㅣ여 ᄒᆞ야 ᄀᆞ장 우르고<月十三 16a>
b. 窮子ㅣ 놀라 怨讎ㅣ여 일ᄏᆞ라 ᄀᆞ장 울오ᄃᆡ(窮子ㅣ 驚愕ᄒᆞ야 稱怨大喚호ᄃᆡ)<法華二 200b>

(18) c. 怨讎ㅣ라 ᄒᆞ야 부텨를 疑心ᄒᆞᅀᆞᄫᆞ니<月十三 32a>
d. 원틔여 블러 부텨 疑心ᄒᆞᅀᆞ오니(稱怨以疑佛ᄒᆞᅀᆞ오니)<法華二 226a>

<19> 적 對 時節

고유어 '적'과 한자어 '時節'이 [時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9a)와 (19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9) a. 說法 오래 ᄒᆞ시다 호ᄆᆞᆫ 마ᄉᆞᆫ 히롤 小敎 니ᄅᆞ싫 저글 니르니라<月十三 4b>
b. 法 니ᄅᆞ샤미 ᄒᆞ마 오라ᄆᆞᆫ 四十年을 져근 敎 니ᄅᆞ시던 時節을 ᄀᆞᄅᆞ치니라(說法旣久ᄂᆞᆫ 指四十年을 說小敎時也ᄒᆞ니라)<法華二 180a>

<20> 집 對 舍

두 명사가 [舍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0a)와 (20b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20) a. 지븐 기픠 드로ᄆᆞᆯ 가줄비니<月十三 11a>
b. 舍ᄂᆞᆫ 기픠 드로ᄆᆞᆯ 가줄비니(舍ᄂᆞᆫ 譬深入ᄒᆞ니)<法華二 191b>

<21> 처섬 對 始

고유어 '처섬'이 한자어 '始'와 [始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1a)와 (2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1) a. 本來 처섬 覺이 眞實ㅅ 父子ㅣ며<月十三 31b>
b. 本과 始왓 覺이 眞實ㅅ 父子ㅣ며(本始之覺이 眞父子ㅣ며)<法華二 225b>

<22> 천량 對 財物

두 명사가 [財物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2a)와 (22b), 그리고 (22c)와 (22d)에서 잘 확인된다.

(22) a. 천랴ᄋᆞᆯ 맛디면<月十三 10a>
b. 財物을 맛디면(委付財物ᄒᆞ면)<法華二 189b>

(22) c. 내 천량 庫藏ᄋᆞᆯ 이제 맛듐 ᄃᆡ 잇거다<月十三 15a>
d. 내 財物 庫藏이 이제 맛ᄃᆞᆯ ᄯᅥ 잇도다(我財物庫藏이 今有所付ㅣ로다)<法華二 198b>

두 문헌에서 '財物'과 '財'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2e)와 (22f), 그리고 (22g)와 (22h)에서처럼 '천량'으로만 번역된다.

(22) e. 천랴이 맛듐 ᄃᆡ 이슈믄<月十三 15b>
f. 천량이 맛ᄃᆞᆯ ᄯᅥ 이쇼ᄆᆞᆫ(財物有付ᄂᆞᆫ)<法華二 199a>

(22) g. 천량 보비 그지 업서<月十三 7b>
h. 천량 보비 그지 업서(財寶ㅣ 無量ᄒᆞ야)<法華二 186a>

Ⅲ.2. 動詞類에서의 同義

<1> ᄀᆞᄅᆞ치다 對 敎化ᄒᆞ다

고유어 'ᄀᆞᄅᆞ치다'가 한자어 '敎化ᄒᆞ다'와 [敎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根ᄋᆞᆯ 보샤 마초 ᄀᆞᄅᆞ치샤(觀根逼敎ᄒᆞ샤)<法華三 27a>
b. 根을 보샤 마초 敎化ᄒᆞ샤<月十三 55a>

<2> 가줄비다 對 譬喩ᄒᆞ다

고유어 '가줄비다'가 한자어 '譬喩ᄒᆞ다'와 [喩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, 그리고 (2c)와 (2d)에서 잘 확인된다.

(2) a. 人天 善ᄒᆞᆫ 씨와 三乘智因이 能히 害를 머리ᄒᆞ며 구즌 일 업게 호ᄆᆞᆯ 가줄비니<月十三 38a>
b. 人天 善種과 三乘智因의 能히 害를 머리ᄒᆞ며 惡 滅ᄒᆞᄂᆞ닐 譬喩ᄒᆞ시니(以喩人天善種과 三乘智因의 能遠害滅惡者ᄒᆞ시니)<法華三 3a>

(2) c. 혀 佛慧예 들의 ᄒᆞ샤ᄆᆞᆯ 가줄비시니라<月十三 73b>
d. 혀샤 佛慧예 들에 ᄒᆞ샤ᄆᆞᆯ 譬喩ᄒᆞ시니라(喩……而引之ᄒᆞ샤 令入佛慧케 ᄒᆞ시니라)<法華三 83a>

한편 두 문헌에서 '喩'와 '譬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e)와 (2f), (2g)와 (2h), 그리고 (2i)와 (2j)에서처럼 '가줄비다'로만 번역된다.

(2) e. 眞知로 그스기 化ᄒᆞ샤매 物마다 제 이루믈 가줄비시니라<月十三 46b>

f. 眞知로 그스기 化ᄒᆞ샤매 物物이 제 이로ᄆᆞᆯ 가줄비시니라(喩眞知로 冥化ᄒᆞ샤매 物物이 自遂也ᄒᆞ시니라)<法華三 12a>

(2) g. 아비 ᄇᆞ료ᄆᆞᆫ 本覺 ᄇᆞ료ᄆᆞᆯ 가줄비고<月十三 7a>
h. 아비 ᄇᆞ료ᄆᆞᆫ 本覺 ᄇᆞ려 背叛호ᄆᆞᆯ 가줄비니라(捨父ᄂᆞᆫ 譬棄背本覺이라)<法華二 183a>

(2) i. 그 아비ᄂᆞᆫ 覺皇ᄋᆞᆯ 가줄비고<月十二 8a>
j. 그 아비ᄂᆞᆫ 覺皇ᄋᆞᆯ 가줄비ᅀᆞ오니라(其父ᄂᆞᆫ 譬覺皇也ㅣ라)<法華二 183a>

<3> 가지다 對 取ᄒᆞ다

두 동사가 [取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) a. 當ᄒᆞᆫ 機ᄅᆞᆯ 가져(取當機ᄒᆞ야)<法華三 3b>
b. 當ᄒᆞᆫ 機ᄅᆞᆯ 取ᄒᆞ야<月十三 38b>

<4> 거리츠다 對 濟渡ᄒᆞ다

고유어 '거리츠다'가 한자어 '濟渡ᄒᆞ다'와 [濟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a)와 (4b)에서 잘 확인된다.

(4) a. 져근 法 즐겨 證 求ᄒᆞᄂᆞᆫ 사ᄅᆞᄆᆞᆯ 거리츠샤(以濟樂小求證之人ᄒᆞ샤)<法華三 83a>
b. 져근 法 즐겨 證 求ᄒᆞᄂᆞᆫ 사ᄅᆞᄆᆞᆯ 濟渡ᄒᆞ샤<月十三 73b>

한편 두 문헌에서 '濟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c)와 (4d)에서처럼 '거리츠다'로만 번역된다.

(4) c. 먼 길헤 마켜 쉬오져 ᄒᆞ논 사ᄅᆞᄆᆞᆯ 거리쳐<月十三 73a>
d. 먼 ᄃᆡ 마켜 쉬오져 願ᄒᆞ논 사ᄅᆞᄆᆞᆯ 거리쳐(以濟阻願息之人ᄒᆞ야)<法華三 83a>

<5> 고티다 對 改ᄒᆞ다

고유어 '고티다'가 한자어 '改ᄒᆞ다'와 [改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a)와 (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5) a. 預(25a)流ᄅᆞᆯ 改ᄒᆞ야 後果애 나ᅀᅡᅀᅡ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<月十三 25b>
b. 預流ᄅᆞᆯ 고티샤 後果애 나ᅀᅡᅀᅡ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(譬改預流ᄒᆞ야 而進後果ㅣ니라)<法華二 214a>

<6> 괴외ᄒᆞ다 對 寂滅ᄒᆞ다

고유어 '괴외ᄒᆞ다'가 한자어 '寂滅ᄒᆞ다'와 [寂滅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a)와 (6b)에서 잘 확인된다.

(6) a. ᄆᆞᄎᆞ기리 괴외ᄒᆞᆯ 씨 니ᄅᆞ샨 涅槃이라(究竟永寂曰涅槃이라)<法華三 16b>
b. 究竟ᄒᆞ야 기리 寂滅ᄒᆞᆷ미 涅槃이라<月十三 49b>

<7> 굿블이다 對 降服히오다

두 동사가 [伏] 즉 '항복시키다'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7a)와 (7b)에서 잘 확인된다.

(7) a. 二乘이 煩惱ᄅᆞᆯ 降服히(22b)와 그츠ᄃᆡ<月十三 23a>
b. 二乘의 煩惱 굿블여 그추ᄃᆡ(二乘의 伏斷煩惱호ᄃᆡ)<法華二 210b>

<8> 깄다 對 歡喜ᄒᆞ다

고유어 '깄다'가 한자어 '歡喜ᄒᆞ다'와 [歡喜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a)와 (8b), 그리고 (8c)와 (8d)에서 잘 확인된다.

(8) a. ᄆᆞᅀᆞ매 甚히 깃거(心甚歡喜ᄒᆞ야)<法華二 181b>
b. ᄆᆞᅀᆞ매 甚히 歡喜ᄒᆞ야<月十三 6a>

(8) c. 볼 ᄊᆞᄅᆞ미 깃그며(見者ㅣ 歡喜ᄒᆞ며)<法華三 74b>
d. 봄 사ᄅᆞ미 歡喜ᄒᆞ며<月十三 69b>

한편 두 문헌에서 '歡喜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e)와 (8f)에서처럼 '깄다'로만 번역되고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g)와 (8h)에서처럼 '歡喜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8) e. ᄆᆞᅀᆞ매 ᄀᆞ장 깃거<月十三 34a>
f. ᄆᆞᅀᆞ매 ᄀᆞ장 깃거(心大歡喜ᄒᆞ야)<法華二 229a>

(8) g. 봄 사ᄅᆞ미 歡喜ᄒᆞ며<月十三 72a>
h. 볼 ᄊᆞᄅᆞ미 歡喜ᄒᆞ며(見者ㅣ 歡喜ᄒᆞ며)<法華三 78a>

<9> ᄂᆞᄉᆞᆺ다 對 踊躍ᄒᆞ다

두 동사가 [踊躍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a)와 (9b)에서 잘 입증된다.

(9) a. 希有心을 내야 깃거 ᄂᆞ소사<月十三 3a>
b. 希有心을 發ᄒᆞ야 歡喜踊躍ᄒᆞ야(發希有心ᄒᆞ야 歡喜踊躍ᄒᆞ야)<法華二 176a>

<10> ᄂᆞᆯ압다 對 賤ᄒᆞ다

고유어 '눌압다'가 한자어 '賤ᄒᆞ다'와 [賤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0a)와 (1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0) a. 貴ᄒᆞ며 賤ᄒᆞ며<月十三 59b>
b. 貴ᄒᆞ며 눌아오며(貴賤)<法華三 56a>

<11> 내다 對 發ᄒᆞ다

고유어 '내다'가 한자어 '發ᄒᆞ다'와 [發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1a)와 (1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1) a. 希有心을 내야<月十三 3a>
b. 希有心을 發ᄒᆞ야(發希有心ᄒᆞ야)<法華二 176a>

<12> ᄃᆞ리다 對 向ᄒᆞ다

두 동사가 [向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a)와 (1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2) a. 놈 ᄃᆞ려 이런 이를 ᄀᆞᆷ간도 니르디 아니ᄒᆞ고<月十三 9b>
b. ᄀᆞᆷ간도 놈 向ᄒᆞ야 이 ᄀᆞᆮᄒᆞᆫ 이를 니ᄅᆞ디 아니코(未曾向人ᄒᆞ야 說如此事ᄒᆞ고)<法華二 189b>

<13> 다시 ᄒᆞ다 對 牒ᄒᆞ다

고유어 '다시 ᄒᆞ다'가 한자어 '牒ᄒᆞ다'와 [牒] 즉 '포개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3a)와 (13b), 그리고 (13c)와 (13d)에서 잘 확인된다.

(13) a. 前엣 ᄒᆞᆫ 相 ᄒᆞᆫ 맛 等文을 다시 ᄒᆞ샤<月十三 57a>
b. 알핏 一相 一(30a)味 等文을 牒ᄒᆞ샤(牒前엣 一相一味 等文ᄒᆞ샤)<法華三 30b>

(13) c. 이ᄂᆞᆫ 前엣 文字ᄅᆞᆯ 다시 ᄒᆞ시니<月十三 57b>
d. 이ᄂᆞᆫ 알핏 그를 牒ᄒᆞ샤ᄃᆡ(此ᄂᆞᆫ 牒前文ᄒᆞ샤ᄃᆡ)<法華三 30b>

<14> 돕다 對 將ᄒᆞ다

고유어 '돕다'가 한자어 '將ᄒᆞ다'와 [將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4a)와 (14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4) a. 안ᄌᆞᆨ 도ᄋᆞ시며 護持ᄒᆞ샤(且將之護之ᄒᆞ야)<法華三 30b>
b. 안ᄌᆞᆨ 將ᄒᆞ며 護ᄒᆞ샤<月十三 57a>

<15> 둏다 對 善ᄒᆞ다

고유어 '둏다'가 한자어 '善ᄒᆞ다'와 [善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5a)와 (1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5) a. 後에 됴ᄒᆞᆫ 고대 나(後生善處ᄒᆞ야)<法華三 20b>
b. 後에 善ᄒᆞᆫ 고대 나<月十三 51b>

<16> 디다 對 損ᄒᆞ다

두 동사가 [損] 즉 '덜다, 줄이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고 '더으다'와 對立關係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6a)와 (16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6) a. 本來 그 ᄉᆞ싀예 더으며 듀미 업스니라<月十三 62a>
b. 本來 그 ᄉᆞ싀예 더으며 損호미 업스시니라(固無加損於其間ᄒᆞ시니라)<法華三 59a>

<17> 마ᄀᆡ오다 對 證ᄒᆞ다

두 동사가 [證] 즉 '증명하다, 밝히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7a)와 (17b)에서 잘 확인된다. 한편 두 문헌에서 '證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7c)와 (17d), 그리고 (17e)와 (17f)에서처럼 '證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17) a. 父子ㅣ 明白호ᄆᆞᆯ 마ᄀᆡ오니라<月十三 31a>
b. 父子ㅣ 올호ᄆᆞᆯ 證ᄒᆞ니(以證父子之的也ㅣ니)<法華二 225a>

(17) c. 一乘 닷가 證ᄒᆞ논 法이라<月十三 37a>
d. 一乘 닷가 證홇 法이라(一乘修證之法也ㅣ라)<法華二 233a>

(17) e. 空ᄋᆞᆯ 브터 아라 空ᄋᆞᆯ 브터 實 證케 호ᄆᆞᆯ 뵈샤미라<月十三 67b>
f. 空ᄋᆞᆯ 因ᄒᆞ야 아ᄅᆞ샤ᄆᆞᆯ 뵈샤 空ᄋᆞᆯ 브터 實을 證케 ᄒᆞ샤미라(示因空悟解ᄒᆞ샤 使由空證實也ㅣ라)<法華三 69a>

<18> 맡다 對 領ᄒᆞ다

두 동사가 [領] 즉 '맡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8a)와 (18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8) a. 疑心이 업서 寶藏ᄋᆞᆯ 즐겨 맛게 ᄒᆞ니라<月十三 28a>
b. 疑心ㅅ ᄉᆞ싀 업게 ᄒᆞ야 寶藏ᄋᆞᆯ 즐겨 領케 ᄒᆞ니라(便無疑間ᄒᆞ야 而欣·領寶藏也케 ᄒᆞ니라)<法華二 219a>

<19> 몱다 對 究竟ᄒᆞ다

두 동사가 [究竟] 즉 '마치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9a)와 (19b)에서 잘 확인된다. 한편 두 문헌에서 '究竟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9c)와 (19d)에서처럼 '究竟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19) a. ᄆᆞᄎᆞ 기리 괴외ᄒᆞᆯ 씨 니ᄅᆞ샨 涅槃이라(究竟永寂曰涅槃이라)<法華三 16b>
b. 究竟ᄒᆞ야 기리 寂滅호미 涅槃이라<月十三 49b>

(19) c. 究竟ᄒᆞ야 常寂滅相애 니를면<月十三 57b>
d. 究竟ᄒᆞ야 常寂滅相애 니를면(究竟至於常寂滅相ᄒᆞ면)<法華三 31a>

<20> 모ᄅᆞ다 對 迷ᄒᆞ다

고유어 '모ᄅᆞ다'가 한자어 '迷ᄒᆞ다'와 [迷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0a)와 (2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0) a. 엇더콴ᄃᆡ 뒤ᄒᆞ로 ᄃᆞᆯ요매 제 일흐며 밧 物에 제 모ᄅᆞ거뇨<月十三 32a>
b. 엇뎨 背叛ᄒᆞ야 ᄃᆞ로매 제 일흐며 밧 物에 제 迷커뇨(奈何自失於背馳하며 自迷於外物오)<法華二 226a>

<21> 모ᄅᆞ다 對 迷惑ᄒᆞ다

고유어 '모ᄅᆞ다'가 한자어 '迷惑ᄒᆞ다'와 [迷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1a)와 (2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1) a. 녜 몰라 ᄲᅥ디엿다가(在昔迷淪ᄒᆞ얫다가)<法華二 188b>
b. 녜 迷惑ᄒᆞ야 ᄲᅥ디여 잇다가<月十三 9b>

<22> 무듸다 對 鈍ᄒᆞ다

두 상태동사가 [鈍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고 '놀캅다'와 대립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2a)와 (2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2) a. 機 놀카ᄫᆞ니 무듸니 이실ᄊᆡ<月十三 38a>
b. 機ㅣ 놀카오며 鈍호미 이실ᄊᆡ(機有利鈍故로)<法華三 3a>

<23> 므겁다 對 重ᄒᆞ다

두 상태동사가 [重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3a)와 (2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3) a. 障이 므거워(障重ᄒᆞ야)<法華三 15a>
b. 障이 重ᄒᆞ야<月十三 48b>

<24> 받다 對 受ᄒᆞ다

두 동사가 [受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4a)와 (24b)에서 잘 확인된다. 두 문헌에서 '受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4c)와 (24d)에서처럼 '受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24) a. 그ᄢᅴ 窮子ㅣ 즉재 敎勅 바다<月十三 28b>
b. 그ᄢᅴ 窮子ㅣ 즉재 敎勅 受ᄒᆞ야(爾時窮子ㅣ 卽受敎勅ᄒᆞ야)<法華二 219b>

(24) c. 여러 가짓 熱惱ᄅᆞᆯ 受ᄒᆞ야<月十三 33a>
d. 여러 熱惱ᄅᆞᆯ 受ᄒᆞ야(受諸熱惱ᄒᆞ야)<法華二 227b>

<25> 뷔듣니다 對 迨媲ᄒᆞ다

두 동사가 [諂諛] 즉 '비틀거리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5a)와 (25b)에서 잘 확인된다. 한편 두 문헌에서 '諂諛'이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5c)와 (25d)에서처럼 '뷔듣니다'로만 번역된다.

(25) a. 乃終내 四生五道애 뷔듣녀 窮因ᄒᆞ리니<月十三 32a>
b. 내죵애 諂諛ᄒᆞ야 四生五道애 窮因ᄒᆞ리러니(終則諂諛ᄒᆞ야 窮困於四生五道ᄒᆞ리러니)<法華二 226a>

(25) c. 뷔듣녀 辛苦호미 쉬나몬 히러니<月十三 29b>
d. 뷔듣녀 辛苦ㅣ 쉬나몬 히러니(諂諛辛苦ㅣ 五十餘年이러니)<法華二 222b>

<26> 븥다 對 因ᄒᆞ다

두 동사가 [因] 즉 '말미암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6a)와 (26b)에서 잘 확인된다. 한편 두 문헌에서 '因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6c)와 (26d)에서처럼 '因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26) a. 즐거부미 變ᄒᆞ야 달오ᄆᆞᆯ 브터<月十三 33a>
b. 즐거우믜 變ᄒᆞ야 달오ᄆᆞᆯ 因ᄒᆞ야(因樂變異ᄒᆞ야)<法華二 228a>

(26) c. 우리 ᄯᅩ 如來ㅅ 智慧ᄅᆞᆯ 因ᄒᆞ야<月十三 35b>
d. 우리 ᄯᅩ 如來ㅅ 智慧ᄅᆞ 因ᄒᆞ야(我等이 又因如來ㅅ 智慧ᄒᆞ야)<法華二 231a>

<27> 싁싁게 ᄒᆞ다 對 莊嚴ᄒᆞ다

고유어 '싁싁게 ᄒᆞ다'가 한자어 '莊嚴ᄒᆞ다'와 [嚴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7a)와 (27b)에서 잘 확인된다. 한편 두 문헌에서 '莊嚴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7c)와 (27d)에서처럼 '莊嚴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27) a. 衆生ᄋᆡ 心地 ᄉᆡᆨᄉᆡᆨ게 ᄒᆞ샤미라(嚴衆生心地也ㅣ라)<法華二 197a>
b. 衆生ᄋᆡ 心地ᄅᆞᆯ 莊嚴ᄒᆞ샤미라<月十三 14b>

(27) c. 그 나라ᄒᆞᆯ 莊嚴ᄒᆞ며<月十三 70a>
d. 그 나라ᄒᆞᆯ 莊嚴ᄒᆞ리라(莊嚴其國ᄒᆞ리라)<法華三 75a>

<28> 심기다 對 授ᄒᆞ다

두 동사가 [授] 즉 '주다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8a)와 (28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8) a. 淨名이 아ᄅᆡ 彌勒ᄃᆡ 一生記 심기샤ᄆᆞᆯ 荒唐히 너기샤ᄃᆡ(淨名이 嘗怪彌勒ᄃᆡ 授一生記ᄒᆞ샤ᄃᆡ)<法華三 55a>
b. 淨名이 彌勒이 一生記 受호ᄆᆞᆯ 荒唐히 너교ᄃᆡ<月十三 58b>

<29> 알다 對 領悟ᄒᆞ다

고유어 '알다'가 한자어 '領悟ᄒᆞ다'와 [領悟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9a)와 (29b)에서 잘 확인된다.

(29) a. 이 品은 中根 爲ᄒᆞ샤 안 ᄠᅳ들 ᄆᆞᄌᆞ 일우시니<月十三 37a>
b. 이 品은 中根 爲ᄒᆞ샤 領悟ᄒᆞᆫ ᄠᅳ들 述成ᄒᆞ시니라(此品은 爲中根ᄒᆞ샤 述成領悟之意也ᄒᆞ시니라)<法華三 2b>

<30>알다 對 解ᄒᆞ다

고유어 '알다'가 한자어 '解ᄒᆞ다'와 [解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0a)와 (3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0) a. 아디 몯ᄒᆞᆫ 사ᄅᆞᄆᆞᆯ 알에 ᄒᆞ며(未解者ᄅᆞᆯ 令解ᄒᆞ며)<法華三 16a>
b. 解 몯ᄒᆞ니ᄅᆞᆯ 解케 ᄒᆞ며<月十三 49a>

<31> 얻다 對 得ᄒᆞ다

두 동사가 [得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1a)와 (31b), 그리고 (31c)와 (31d)에서 잘 입증된다.

(31) a. 그지업슨 보비ᄅᆞᆯ 아니 求ᄒᆞ야셔 얻ᄌᆞᆸ과이다<月十三 6b>
b. 그지업슨 보비ᄅᆞᆯ 求티 아니ᄒᆞ야 제 得과이다(無量珍寶ᄅᆞᆯ 不求自得괘이다)<法華二 181b>

(31) c. 物 어듧 ᄯᅡ 아니라 호ᄆᆞᆫ<月十三 15a>
d. 物 得홇 ᄭᅩᆫ 아니ᄂᆞᆫ(非得物處ᄂᆞᆫ)<法華二 197b>

한편 두 문헌에서 '得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1e)와 (31f)에서처럼 '얻다'로만 번역되고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1g)와 (31h)에서처럼 '得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31) e. ᄒᆞ(10a)다가 아ᄃᆞᄅᆞᆯ 어더<月十三 10b>
f. 내 ᄒᆞ다가 아ᄃᆞᆯ 어더(我若得子ᄒᆞ야)<法華二 189b>

(31) g. 네 업던 이ᄅᆞᆯ 得호라 ᄒᆞ야<月十三 32b>
h. 未曾有ᄅᆞᆯ 得ᄒᆞ야(得未曾有ᄒᆞ야)<法華二 226b>

<32> 없다 對 滅ᄒᆞ다

두 동사가 [滅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2a)와 (32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2) a. 正法 像法이 各各 스믈 劫 後에 업수믄<月十三 61b>
b. 正像法이 各各 二十劫 後에ᅀᅡ 滅호ᄆᆞᆫ(正像之法이 各二十劫而後에ᅀᅡ 滅者ᄂᆞᆫ)<法華三 58b>

<33> 올ᄒᆞ다 對 明白ᄒᆞ다

두 동사가 [的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3a)와 (3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3) a. 父子ㅣ 올호ᄆᆞᆯ 證ᄒᆞ니(以證父子之的也ㅣ니)<法華二 225a>
b. 父子ㅣ 明白호ᄆᆞᆯ 마기오니라<月十三 31a>

<34> 잇다 對 住ᄒᆞ다

두 동사가 [住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4a)와 (34b), 그리고 (34c)와 (34d)에서 잘 확인된다.

(34) a. 다ᄅᆞᆫ 나라해 오래 이셔<月十三 6b>
b. 다ᄅᆞᆫ 나라해 오래 住호ᄃᆡ(久住他國호ᄃᆡ)<法華二 182b>

(34) c. 이ᄅᆞᆯ 닐온 種種 ᄯᅡ해 잇거든<月十三 56a>
d. 이 니ᄅᆞ샨 種種地예 住커든(是謂住於種種之地어든)<法華三 28a>

<35> ᄌᆞ라다 對 長大ᄒᆞ다

두 동사가 [長大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5a)와 (35b)에서 잘 입증된다. 두 문헌에서 '長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5c)와 (35d)에서처럼 'ᄌᆞ라다'로만 번역된다.

(35) a. 나히 ᄒᆞ마 ᄌᆞ라<月十三 7a>
b. 나히 ᄒᆞ마 長大ᄒᆞ야(年旣長大ᄒᆞ야)<法華二 183b>

(35) c. 나히 ᄌᆞ라 窮困ᄒᆞ야<月十三 7a>
d. 나히 ᄌᆞ라 窮困ᄒᆞ야(年長窮困ᄒᆞ야)<法華二 184a>

<36> 좇다 對 從ᄒᆞ다

두 동사가 [從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6a)와 (36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6) a. 從티 아니커늘 구틔여 ᄃᆞ리샤ᄆᆞᆯ 가줄비니라<月十三 17a>
b. 좃ᄌᆞᆸ디 아니커늘 굿 ᄃᆞ리샤ᄆᆞᆯ 가줄비니라(譬不從而强率也ㅣ라)<法華二 202a>

<37> 특특ᄒᆞ다 對 密ᄒᆞ다

두 동사가 [密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7a)와 (37b), 그리고 (37c)와 (37d)에서 잘 확인된다.

(37) a. 구루미 특특디 아니ᄒᆞ면(雲이 不密ᄒᆞ시면)<法華三 10b>
b. 구루미 密티 아니ᄒᆞ면<月十三 45b>

(37) c. 慈ㅣ 특특디 아니ᄒᆞ시면(慈ㅣ 不密ᄒᆞ시면)<法華三 10b>
d. 慈ㅣ 密티(45b) 아니ᄒᆞ면<月十三 46a>

Ⅲ.3. 副詞에서의 同義

<1> 그스기 對 秘密히

두 부사가 [密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, 그리고 (1c)와 (1d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ᄒᆞᆫ 소리로 그ᅀᅳ기 불기시며(一音으로 密闡ᄒᆞ시며)<法華三 2b>
b. ᄒᆞᆫ 소리로 秘密히 불기시며<月十三 37b>

(1) c. ᄒᆞᆫ 소리로 그ᅀᅳ기 불기샤매(一音으로 密闡ᄒᆞ샤매)<法華三 46a>
d. ᄒᆞᆫ 소리로 秘密히 불기샤매<月十三 46a>

<2> 굿 對 强히

두 부사가 [强] 즉 '강제로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에서 잘 입증된다.

(2) a. 强히 ᄃᆞ려 오디 말라 ᄒᆞ고<月十三 18b>
b. 굿 ᄃᆞ려 오디 말오(勿强將來ᄒᆞ고)<法華二 203a>

<3> 기리 對 永히

두 부사가 [永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, 그리고 (3c)와 (3d)에서 잘 입증된다. (3a)와 (3b)에서는 '기리'로만 번역되고 (3c)와 (3d)에서는 '永히'로만 번역된다.

(3) a. 究竟ᄒᆞ야 기리 寂滅호미 涅槃이라<月十三 49b>
b. ᄆᆞᄎᆞ 기리 괴외ᄒᆞᆯ 씨 니ᄅᆞ샨 涅槃이라(究竟永寂曰涅槃이라)<法華三 16b>

(3) c. 滅相은 生死ㅣ 永히 다ᄋᆞᆯ 씨니<月十三 54a>
d. 滅相은 生死ㅣ 永히 다ᄋᆞᆯ 씨니(滅相은 則生死ㅣ 永盡이니)<法華三 25a>

<4> 두루 對 周遍히

두 부사가 [周遍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a)와 (4b)에서 잘 확인된다. 두 문헌에서 '周遍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c)와 (4d)에서처럼 '周遍'으로만 번역된다.

(4) a. 여러 寶華를 흐터 두루 淸淨ᄒᆞ리라(散諸寶華ᄒᆞ야 周遍淸淨ᄒᆞ리라)<法華三 59a>
b. 여러 가짓 寶華를 비허 周遍히 淸淨ᄒᆞ리니<月十三 62b>

(4) c. 보ᄇᆡ옛 고지 ᄯᅡ해 두피고 周遍淸淨ᄒᆞ며<月十三 66b>
d. 寶華ㅣ ᄯᅡ해 두퍼 周遍淸淨커든(寶華ㅣ 覆地ᄒᆞ야 周遍淸淨커든)<法華三 68b>

<5> ᄆᆡ양 對 每常

두 부사가 [每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a)와 (5b), 그리고 (5c)와 (5d)에서 잘 확인된다. '每常'에서 '常'의 한자음은 '쌍'이다.

(5) a. 아비 每常 아ᄃᆞ를 念호ᄃᆡ<月十三 9b>
b. 아비 ᄆᆡ양 아ᄃᆞᆯ 念호ᄃᆡ(父ㅣ 每念子호ᄃᆡ)<法華二 189b>

(5) c. 每常 아ᄃᆞ를 싱각ᄒᆞ야<月十三 10a>
d. ᄆᆡ양 제 아ᄃᆞ를 싱각ᄒᆞ며(每憶其子ᄒᆞ며)<法華二 189b>

<6> 샐리 對 時急히

두 부사가 [急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a)와 (6b)에서 잘 입증된다. 두 문헌에서 '急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c)와 (6d)에서처럼 '時急히'로만 번역된다.

(6) a. 샐리 자바 도라오라 ᄒᆞ시니<月十三 32a>
b. 時急히 브려 조차 도ᄅᆞ시니(急使追復ᄒᆞ시니)<法華二 226a>

(6) c. 時急히 자바 구틔여 잇구ᄆᆞᆫ<月十三 17a>
d. 時急히 자바 굿 긋오ᄆᆞᆫ(急執而强牽은)<法華二 202a>

<7> ᄉᆞ외 對 仔細히

두 부사가 [審] 즉 '자세히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7a)와 (7b)에서 잘 입증된다.

(7) a. 아ᄃᆞ린 고ᄃᆞᆯ ᄉᆞ외 아로ᄃᆡ<月十三 19a>
b. 이 아ᄃᆞᄅᆞᆯ 仔細히 아로ᄃᆡ(審知是子호ᄃᆡ)<法華二 204a>

<8> 어려ᄇᆡ(어려이) 對 難히

두 부사가 [難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a)와 (8b)에서 '難'이 '어려ᄇᆡ'와 '어려이'로 번역되고 예문 (8c)에서 '難堪'의 '難'이 '難히'로 번역된다는 데서 잘 확인된다.

(8) a. 저ᄂᆞᆫ 豪貴ᄒᆞ야 아ᄃᆞ리 어려ᄇᆡ 너기ᄂᆞᆫ ᄃᆞᆯ 아라<月十三 19a>
b. 저ᄂᆞᆫ 豪貴ᄒᆞ야 아ᄃᆞ리 어려이 너교미 ᄃᆞ왼 ᄃᆞᆯ 아라(自知豪貴ᄒᆞ야 爲子所難ᄒᆞ야)<法華二 204a>
c. ᄠᅳ듸 사오나와 大乘을 難히 이길 ᄯᅩᆯ 아ᄅᆞ실ᄊᆡ 權으로 쉬우샤ᄆᆞᆯ 가줄비니라(譬知其志劣ᄒᆞ야 難堪大乘故로 權息之也ᄒᆞ니라)<法華二 204b>

<9> 어루 對 足히

두 부사가 [足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a)와 (9b)에서 잘 확인된다.

(9) a. 이 法 듣ᄌᆞᄫᆞ니ᄂᆞᆫ 어루 塵勞ᄅᆞᆯ 시스며<月十三 52a>
b. 이 法 듣ᄌᆞ오니 足히 塵勞ᄅᆞᆯ 시스며(聞是法者ㅣ 足以滌塵勞ᄒᆞ며)<法華三 22a>

<10> 오직 對 特別히

두 부사가 [特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0a)와 (1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0) a. 오직 업디 아니ᄒᆞᄂᆞᆫ 理ᄅᆞᆯ 도바 ᄇᆞᆯ기샤<月十三 59b>
b. 特別히 업디 아니ᄒᆞᄂᆞᆫ 理ᄅᆞᆯ 도아 ᄇᆞᆯ기샤(特以助明不亡之理ᄒᆞ야)<法華三 56a>

<11> 잘 對 能히

두 부사가 [能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1a)와 (11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11) a. 이 사ᄅᆞ미 佛法中에 智慧命을 잘 得ᄒᆞᆯ씨니라<月十三 3a>
b. 이 사ᄅᆞ미 佛法中에 能히 智慧命을 得다 ᄒᆞ샤미 이라(是人이 佛法中에 能得智慧命이 是也ㅣ라)<法華二 176b>

<12> 제여곰 對 各各

두 부사가 [各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a)와 (12b)에서 잘 확인된다. 한편 두 문헌에서 '各各'과 '各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c)와 (12d), 그리고 (12e)와 (12f)에서처럼 '各各'으로만 번역된다.

(12) a. 제여곰 ᄌᆡ조ᄅᆞᆯ 일우니<月十三 53a>
b. 各各 그 ᄌᆡ조ᄅᆞᆯ 일우ᄂᆞ니(各遂其才也ㅣ니)<法華三 22a>

(12) c. 各各 ᄒᆞᆫ 가지 아니니<月十三 56a>
d. 各各 ᄀᆞᆮ디 아니호미(各各不同호미)<法華三 28a>

(12) e. 各各 願緣을 조ᄎᆞ며<月十三 61a>
f. 各各 그 願緣을 ᄯᆞᆺ고(各隨其願緣也ㅣ오)<法華三 57b>

<13> 즉재 對 卽時예

두 부사가 [卽時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3a)와 (1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3) a. 즉재 長者ㅣ 다시 일홈 지ᅀᅥ(卽時長者ㅣ 更與作字ᄒᆞ야)<法華二 213b>
b. 卽時예 長者ㅣ 고텨 일홈 지허<月十三 25a>

<14> ᄒᆞᆫᄠᅴ 對 一時예

두 부사가 [一時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4a)와 (14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4) a. ᄒᆞᆫᄠᅴ ᄀᆞ티 브ᅀᅥ(一時예 等澍ᄒᆞ야)<法華三 10a>
b. 一時예 ᄒᆞᆫ가지로 브ᅀᅥ<月十三 45b>

<15> 훤히 對 快히

두 부사가 [快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5a)와 (15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5) a. 種種無量을 다 깃게 ᄒᆞ야 훤히 善利를 得게 ᄒᆞᄂᆞ니(種種無量을 皆令歡喜ᄒᆞ야 快得善利케 ᄒᆞᄂᆞ니)<法華三 19a>
b. 種種無量이 다 歡喜ᄒᆞ야 善利를 快히 得게 ᄒᆞ니<月十三 51a>

Ⅲ.4. 感歎詞에서의 동의

<1> 잇 對 咄

두 감탄사가 [咄] 즉 '어이'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咄 男子아 네 샹녜 이에셔 일ᄒᆞ고 다른 ᄃᆡ 가디 말라<月十三 23a>
b. 잇 男子아 네 샹녜 이를 짓고 ᄂᆞ외 년 ᄃᆡ 가디 말라(咄男子아 汝ㅣ 常此作ᄒᆞ고 勿復餘去ᄒᆞ라)<法華二 211b>

Ⅳ. 漢字語 간의 同義

두 문헌에서 확인되는 한자어 간의 동의 관계는 名詞, 動詞類 및 副詞에서 고찰될 수 있다.

Ⅳ.1. 名詞에서의 同義

<1> 境界 對 境

두 명사가 [境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ᄒᆞᆫ 眞實ㅅ 境界옛 三界옛 여러 趣ㅣ 달옴 이쇼ᄆᆞᆯ 가줄비시니라<月十三 45a>
b. ᄒᆞᆫ 眞實ㅅ 境이로ᄃᆡ 三界 諸趣의 달옴 이쇼ᄆᆞᆯ 가줄비시고(譬一眞境이로

ᄃᆡ 而有三界諸趣之別也ᄒᆞ시고)<法華三 9b>

<2> 敎化 對 化

두 명사가 [化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, (2c)와 (2d), 그리고 (2e)와 (2f)에서 잘 입증된다.

(2) a. 秘密ᄒᆞᆫ 敎化ᄅᆞᆯ ᄀᆞᄆᆞ니 펴샤<月十三 22b>
b. 秘密ᄒᆞᆫ 化ᄅᆞᆯ ᄀᆞᄆᆞ니 펴샤(潛施密化ᄒᆞ샤)<法華二 210b>

(2) c. 웃 이ᄅᆞᆯ 다 닐오ᄆᆞᆫ 부텨를 順ᄒᆞᄉᆞ바 敎化 펴샤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<月十三 21a>
d. 우흿 이ᄅᆞᆯ 다 닐오ᄆᆞᆫ 부텨를 順ᄒᆞᄉᆞ와 化 펴샤ᄆᆞᆯ 가ᄌᆞᆯ비니라(具陳上事ᄂᆞᆫ 譬順佛揚化ᄒᆞ니라)<法華二 207a>

(2) e. 네 本性을 브터 敎化 ᄇᆞᆯ기시니<月十三 31b>
f. 네 本性을 브트샤 化 ᄇᆞᆯ기실ᄊᆡ(昔依本性ᄒᆞ샤 闡化ᄒᆞ실ᄊᆡ)<法華二 225b>

한편 '化'는 두 문헌에서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g)와 (2h)에서처럼 다 '敎化'로만 번역된다.

(2) g. 華幡은 한 善으로 敎化 ᄂᆞ리오샤ᄆᆞᆯ 가ᄌᆞᆯ빌ᄊᆡ<月十三 14a>
h. 華幡은 한 善으로 敎化 ᄂᆞ리오샤ᄆᆞᆯ 가ᄌᆞᆯ빌ᄊᆡ(華幡은 譬衆善下化故로)<法華二197a>

<3> 道理 對 道

두 명사가 [道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에서 잘 확인된다. 두 문헌에서 '道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c)와 (3d)에서처럼 '道'로만 번역된다.

(3) a. 敎化ㅣ ᄒᆞᆫ 道理샤ᄃᆡ<月十三 47b>
b. 化ᄒᆞ샤미 ᄒᆞᆫ 道ㅣ로ᄃᆡ(所化ㅣ 一道ㅣ로ᄃᆡ)<法華三 14a>

(3) c. 道 니ᄅᆞ논 사ᄅᆞ미로니<月十三 49b>
d. 道 니ᄅᆞ니로니(說道者ㅣ로니)<法華三 17a>

<4> 商估 對 商人

두 명사가 동의어라는 사실은 (4a)에서 잘 확인된다. 한편 두 문헌에서 '商估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b)와 (4c)에서처럼 '商估'로만 번역된다.

(4) a. 商估논 商人이라 닐오미 ᄀᆞᆮᄒᆞ니라(商估논 猶商人也ㅣ라)<法華二 187b>

(4) b. 商估 賈客이 ᄯᅩ 甚히 하더니<月十三 8a>
c. 商估와 賈客이 ᄯᅩ 甚히 만터니(商估賈客이 亦甚衆多ᄒᆞ더니)<法華二 186a>

<5> 術 對 法

두 명사가 [方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a)와 (5b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5) a. 나ᅀᅡ 닷곰 術 이슈믈 가줄비고<月十三 15a>
b. 나ᅀᅡ 닷곰 法 이슈믈 가줄비고(譬進修有方ᄒᆞ고)<法華二 197b>

<6> 時節 對 時

두 명사가 [時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a)와 (6b)에서 잘 확인된다. 두 문헌에서 '時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6c)와 (6d)에서처럼 '時節'로만 번역된다.

(6) a. 더 時節에 根性이 一定티 몯ᄒᆞ야<月十三 31a>
b. 더 時예 根性이 一定 몯ᄒᆞ야(蓋彼時예 根性이 未定ᄒᆞ야)<法華二 225a>

(6) c. ᄯᅩ 아니한 時節 디나니<月十三 29a>
d. ᄯᅩ 져고맛 時節 디내야(復經少時ᄒᆞ야)<法華二 222a>

<7> 臣下 對 臣佐

두 명사가 [臣佐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7a)와 (7b)에서 잘 입증된다.

(7) a. 臣下ᄂᆞᆫ 百姓 다ᄉᆞ리ᄂᆞᆫ 거시니<月十三 8b>
b. 臣佐ᄂᆞᆫ 百姓 다ᄉᆞ리ᄂᆞᆫ 거시니(臣佐ᄂᆞᆫ 所以治民이니)<法華二 187a>

(7) c. 죠이며 臣(7b)下ㅣ며 百姓이 만ᄒᆞ며<月十三 8a>
d. 종과 臣佐吏民이 만ᄒᆞ며(多有僮僕과 臣佐吏民ᄒᆞ며)<法華二 186a>

<8> 獄 對 牢獄

두 명사가 [牢獄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8a)와 (8b)에서 잘 입증된다.

(8) a. 二乘은 三界로 獄ᄋᆞᆯ 사ᄆᆞᆯᄊᆡ<月十三 17a>
b. 二乘은 三界로 牢獄ᄋᆞᆯ 사ᄆᆞᆯᄊᆡ(二乘은 以三界로 爲牢獄故로)<法華二 202a>

<9> 恩德 對 恩

두 명사가 [恩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9a)와 (9b)에서 잘 확인된다.

(9) a. 慈悲 方便의 큰 恩德을 感動ᄒᆞ야 讚歎ᄒᆞ니<月十三 42b>
b. 慈悲 方便ㅅ 큰 恩을 感動ᄒᆞᅀᆞ와 讚歎ᄒᆞᅀᆞ오니(感嘆慈悲方便之大恩ᄒᆞᅀᆞ오니)<法華三 4b>

<10> 利益 對 利

두 명사가 [利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0a)와 (10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0) a. 지ᅀᅥ 일우신 利益을 불기시니라<月十三 52a>
b. 지ᅀᅥ 일우시논 利를 불기시니라(明作成之利也ᄒᆞ시니라)<法華三 21b>

<11> 智慧 對 智

두 명사가 [智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1a)와 (1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1) a. 智慧 方便으로 너펴 니ᄅᆞ나<月十三 43b>
b. 智 方便으로 불어 니ᄅᆞ나(以智方便으로 而演說之ᄒᆞ나)<法華三 6a>

<12> 窓 對 窓牖

두 명사가 [窓牖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2a)와 (12b)에서 잘 입증된다.

(12) a. ᄯᅩ 다ᄅᆞᆫ 나래 窓애셔<月十三 21b>
b. ᄯᅩ 다ᄅᆞᆫ 나래 窓牖中에셔(又以他日에 於窓牖中에셔)<法華二 209b>

Ⅳ.2. 動詞類에서의 同義

<1> 敎化ᄒᆞ다 對 化ᄒᆞ다

두 동사가 [化]의 뜻을 가진 동의어라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 그리고 (1c)와 (1d)에서 명백히 입증된다.

(1) a. 求티 아니커늘 구틔여 敎化ᄒᆞ샤ᄆᆞᆯ 가줄비고<月十三 17a>
b. 求티 아니커늘 굿 化ᄒᆞ샤ᄆᆞᆯ 가줄비고(譬不求而强化ᄒᆞ고)<法華二 202a>

(1) c. 부톄 各各 흘 대ᄅᆞᆯ 조차 敎化ᄒᆞ샤ᄃᆡ<月十三 51a>
d. 부톄 各各 이긔ᄋᆞᆯ ᄆᆡᆯ 조ᄎᆞ샤 化ᄒᆞ샤ᄃᆡ(佛ㅣ 各隨其所堪ᄒᆞ샤 而化ᄒᆞ샤ᄃᆡ)<法華三 19b>

한편 두 문헌에서 '敎化'와 '化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e)와 (1f), 그리고 (1g)와 (1h)에서처럼 각각 '敎化ᄒᆞ다'와 '化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1) e. 그러면 부톄 實로 大乘으로 敎化ᄒᆞ시다ᄉᆞ이다<月十三 36b>
f. 그럴씨 부톄 實로 大乘으로 敎化ᄒᆞ시노소이다(然佛이 大乘으로 敎化ᄒᆞ시노소이다)<法華二 232b>

(1) g. 眞知로 그ᄉᆞ기 化ᄒᆞ샤매<月十三 46b>
h. 眞知로 그ᄉᆞ기 化ᄒᆞ샤매(眞知로 冥化ᄒᆞ샤매)<法華三 12b>

<2> 安ᄒᆞ다 對 便安ᄒᆞ다

두 동사가 [安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에서 잘 확인된다. 두 문헌에서 '安隱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c)와 (2d)에서처럼 '便安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2) a. 安 몯ᄒᆞ니ᄅᆞᆯ 安케 ᄒᆞ며<月十三 49a>
b. 便安티 몯ᄒᆞᆫ 사ᄅᆞᄆᆞᆯ 便安케 ᄒᆞ며(未安者ᄅᆞᆯ 令安ᄒᆞ며)<法華三 16a>

(2) c. 現世예 便安ᄒᆞ며<月十三 51b>
d. 現世예 便安ᄒᆞ며(現世예 安隱ᄒᆞ며)<法華三 20b>

<3> 嗔心ᄒᆞ다 對 怒ᄒᆞ다

두 동사가 [瞋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에서 명백히 확인된다.

(3) a. 네 샹녜 일흠 저긔 소기며 게으르며 嗔心ᄒᆞ며 怨歎앳 마리 업서<月十三 24b>
b. 네 샹녜 지ᅀᅳᆯ 쩨 소(213a)기며 게으르며 怒ᄒᆞ며 怨歎앳 말 업서(汝ㅣ 常作時예 無有欺怠瞋恨怨言ᄒᆞ야)<法華二 213b>

<4> 眞實ᄒᆞ다 對 眞ᄒᆞ다

두 상태동사가 [眞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4a)와 (4b)에서 잘 입증된다.

(4) a. 萬行이 本來 眞實호ᄃᆡ<月十三 13a>
b. 萬行ᄋᆞᆫ 本來 眞호ᄃᆡ(萬行은 本眞호ᄃᆡ)<法華二 196b>

<5> 護ᄒᆞ다 對 護持ᄒᆞ다

두 동사가 [護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a)와 (5b)에서 잘 확인된다. 두 문헌에서 '護'는 동일 원문의 번역인 (5c)와 (5d)에서처럼 '護持ᄒᆞ다'로만 번역된다.

(5) a. 안죽 將ᄒᆞ며 護ᄒᆞ샤<月十三 57a>
b. 안죽 도ᄋᆞ시며 護持ᄒᆞ샤(且將之護之ᄒᆞ샤)<法華三 30b>

(5) c. 비록 魔ㅣ 이셔도 다 佛法을 護持ᄒᆞ리라<月十三 64a>
d. 비록 魔ㅣ 이셔도 다 佛法 護持호미라(雖有魔ᄒᆞ야도 皆護佛法이니라)<法華三 61a>

Ⅳ.3. 副詞에서의 同義

<1> 各別히 對 特別히

두 부사가 [特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a)와 (1b)에서 잘 확인된다.

(1) a. 이에 各別히 迦葉上首를 심기시니<月十三 64b>
b. 이에 特別히 迦葉上首를 심기시니(於此애 特授迦葉上首ᄒᆞ시니)<法華三 64a>

한편 두 문헌에서 '特'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1c)와 (1d)에서처럼 '特別히'로만 번역된다.

(1) c. 威德(12a)이 特別히 尊터니<月十三 12b>
d. 威德이 特別히 尊커늘(威德이 特尊커늘)<法華二 194b>

<2> 急히 對 時急히

두 부사가 [急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2a)와 (2b), 그리고 (2c)와 (2d)에서 잘 확인된다. 즉 '執之…急'과 '急執'의 '急'이 각각 '急히'와 '時急히'로 번역된다.

(2) a. 더욱 急히 자바<月十三 16b>
b. 자보ᄃᆡ 더 急히 ᄒᆞ야(執之逾急ᄒᆞ야)<法華二 200b>

(2) c. 時急히 자바 구틔여 잇구ᄆᆞᆫ<月十三 17a>
d. 時急히 자바 굿 굼오ᄆᆞᆫ(急執而强牽은)<法華二 202a>

<3> 實은 對 實엔

두 부사가 [實]의 뜻을 가지고 동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 원문의 번역인 (3a)와 (3b)에서 잘 확인된다.

(3) a. 實은 ᄒᆞᆫ 相 ᄒᆞᆫ 마시로미 ᄒᆞᆫ 구룸 ᄒᆞᆫ 비 ᄀᆞᆮᄒᆞ니라<月十三 53b>
b. 實엔 一相一味샨ᄃᆡ 一雲一雨ㅣ ᄀᆞᆮᄒᆞ샤ᄆᆞᆯ 니ᄅᆞ시니라(謂……實則一相一味샨ᄃᆡ 如一雲一雨而已시니라)<法華三 24b>

V. 結 語

지금까지 『月印釋譜』 卷十三과 『法華經諺解』의 對比를 통해 확인 가능한 同義語들을 고찰해 왔다. 두 문헌에서 발견되는 同義 關係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가 固有語 간의 同義이고 둘째가 固有語와 漢字語 간의 同義이며 셋째가 漢字語 간의 同義이다.

제2장은 固有語 간의 同義 關係가 名詞類, 動詞類, 冠形詞 및 副詞에서 어떤 양상으로 성립되는가를 고찰한다.

고유어의 名詞類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는 形式的 관점에서 相異한 것과 相似한 것이 있다. 상이형은 서로 다른 형식을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명사류들이 동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이다. 예를 들면, [時]를 뜻하는 'ᄢᅴ'와 '제'를 비롯하여 [處]의 뜻을 가진 '짜ㅎ'와 '곧', 그리고 [今]을 뜻하는 '이제'와 '오ᄂᆞᆯ' 등이 있다. 相似한 것에는 [先]의 뜻을 가진 '아래 對 아ᄅᆡ'를 비롯하여 [今日]을 뜻하는 합성어 '오ᄂᆞᆰ날'과 단일어 '오ᄂᆞᆯ' 그리고 [言]의 뜻을 가진

'말'과 그것의 파생어인 '말씀'이 있다.

고유어의 動詞類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는 形式的 관점에서 相異한 것과 相似한 것이 있다. 相異한 것에는 [滿足]의 뜻을 가진 'ᄀᆞᄃᆞᆨᄒᆞ다'와 'ᄎᆞ다'를 비롯하여 [欣]을 뜻하는 '깄다'와 '즐기다', [至]의 뜻을 가진 '다ᄃᆞᆮ다'와 '니를다', [滯]의 뜻을 가진 '머굴위다'와 '걸이다', [演]을 뜻하는 '부르다'와 '펴다', [慕]의 뜻을 가진 'ᄉᆞ랑ᄒᆞ다'와 'ᄃᆞᆺ다', [恨]을 뜻하는 '애왇브다'와 '측ᄒᆞ다', 그리고 [衆多]의 뜻을 가진 '하다'와 '만ᄒᆞ다' 등이 있다. 相似한 것에는 [說]과 [言]을 뜻하는 '니르다'와 '니ᄅᆞ다'를 비롯하여 [縛]의 뜻을 가진 '밍이다'와 合成動詞 '얽밍여다', 그리고 [淺]의 뜻을 가진 '녙다'와 그것의 파생어인 '녇갑다'가 있다.

고유어의 冠形詞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는 [餘]를 뜻하는 '녀느'와 '녀나ᄆᆞᆫ'을 비롯하여 [餘] 즉 '다른'의 뜻을 가진 '다ᄅᆞᆫ'과 '년' 그리고 [小]를 뜻하는 '죠고맛'과 '져근'이 있다.

고유어의 副詞에서 확인되는 동의 관계는 形式的 관점에서 相異한 것과 相似한 것이 있다. 相異한 것에는 [卽]의 뜻을 가진 '곧'과 '즉재'를 비롯하여 [强]을 뜻하는 '구틔여'와 '굿', [往昔]의 뜻을 가진 '녜'와 '아릐', [但]을 뜻하는 '다ᄆᆞᆫ'과 '오직', [已]의 뜻을 가진 'ᄇᆞᆯ써'와 'ᄒᆞ마' 그리고 [先]을 뜻하는 '아래'와 'ᄆᆞᆫ져' 등이 있다. 相似한 것에는 [可]의 뜻을 가진 '어로'와 '어루' 그리고 [復]를 뜻하는 'ᄂᆞ외야'와 'ᄂᆞ외'가 있다.

제3장은 固有語와 漢字語 간의 동의 관계가 名詞類, 動詞類, 副詞 및 感歎詞에서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는가를 고찰한다. 名詞類의 고유어 22개 중 16개가 『月印釋譜』 권13에서 쓰이고 6개가 『法華經諺解』에서 쓰인다. 동사류의 고유어 37개 중 24개가 『월인석보』 권13에서 쓰이고 13개가 『법화경언해』에서 쓰인다. 부사의 고유어 13개 중 9개가 『월인석보』 권13에서 쓰이고 4개가 『법화경언해』에서 쓰인다.

제4장에서는 漢字語 간의 동의 관계가 名詞, 動詞類 및 副詞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고찰한다.

參 考 文 獻

南星祐(1986), 『十五世紀國語의 同義語 硏究』, 塔出版社.

_____(1991), "十五世紀國語에서의 漢字語間의 同義關係", 『言語와 言語學』 17집, 韓國外國語大學校 言語硏究所.

_____(1993), "月印釋譜의 國語學的 意義", 『震檀學報』 75.

盧銀朱(1990), "法華經의 飜譯에 대한 硏究 -특히 語彙 및 統辭를 中心으로-", 曉星女大 碩士學位論文.

李奉奎(1995), "釋譜詳節 권20과 月印釋譜 권18의 對比硏究", 韓國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.

李錫祿(1992), "月印釋譜 卷 11·12와 法華經諺解의 對比硏究",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.

李崇寧(1971), "國語의 Synonymy의 硏究", 同大語文 1, 同德女大 國語國文學科.

찾 아 보 기

〈ㄱ〉

ᄀᆞᄃᆞᆨᄒᆞ다 對 ᄎᆞ다
ᄀᆞᄅᆞ치다 對 敎化ᄒᆞ다
ᄀᆞᄆᆞ니 對 그ᄉᆞ기
ᄀᆞ장 對 키
ᄀᆞᆯᄒᆞ다 對 ᄀᆞᆯ히다
가시다 對 시들다
가온ᄃᆡ 對 中
가ᄌᆞᆯ비다 對 譬喩ᄒᆞ다
가지다 對 取ᄒᆞ다
各別히 對 特別히
ᄠᅥ디다 對 ᄠᅥ디다
거리츠다 對 濟渡ᄒᆞ다
거슬ᄡᅩ다 對 거슬다
건나다 對 건네뛰다
것ᄆᆞ라 對 답껴(닶겨)
境界 對 境
ᄭᅩ다 對 밍ᄀᆞᆯ다
고티다 對 ᄀᆞᄌᆞ기 ᄒᆞ다
고티다 對 改ᄒᆞ다
고티다 對 다ᄉᆞ리다
곧 對 즉재
괴외ᄒᆞ다 對 寂滅ᄒᆞ다
敎化 對 化
敎化ᄒᆞ다 對 化ᄒᆞ다
구틔여 對 긋
굿블이다 對 降伏히오다
ᄭᅴ 對 제
그듸내 對 諸君
그ᄉᆞ기 對 秘密히
글 對 文
글 對 文字
急히 對 時急히
긋 對 强히
깄다 對 즐기다
깄다 對 歡喜ᄒᆞ다

〈ㄴ〉

ᄂᆞᄉᆞᆺ다 對 踊躍ᄒᆞ다
ᄂᆞ외야 對 ᄂᆞ외
ᄂᆞᆯ압다 對 賤ᄒᆞ다
나ᄆᆞ라다 對 구짖다
나모 對 樹木
내다 對 發ᄒᆞ다
너피다 對 부르다
녀느 對 녀나ᄆᆞᆫ
녇갑다 對 녙다

녜 對 아릐
니ᄅᆞ다 對 숣다
니르다 對 니ᄅᆞ다

〈ㄷ〉

ᄃᆞ리다 對 向ᄒᆞ다
돔다 對 ᄠᅴ디다
짜ᄒᆞ 對 곧
짜ᄒᆞ 對 ᄃᆡ
다ᄃᆞᆫ다 對 니를다
다ᄅᆞᆫ 對 년
다ᄆᆞᆫ 對 오직
다시 ᄒᆞ다 對 牒ᄒᆞ다
답다비 對 닶겨
당다이 對 반ᄃᆞ기
더블다 對 ᄃᆞ리다
더욱 對 더
덦다 對 더럽다
ᄯᅩ 對 다시
ᄯᅩ 對 시혹
道理 對 道
도ᄌᆞᆨ 對 盜賊
돕다 對 將ᄒᆞ다
둏다 對 善ᄒᆞ다
두루 對 周遍히
두르혀다 對 드위혀다
두립다 對 저프다
두텁다 對 둗겁다
드리다 對 펴다
드틀 對 듣글
듣글 對 몯ᄌᆡ
디나다 對 디내다
디내다 對 디나다
디다 對 損ᄒᆞ다
딩다 對 돌이다

〈ㅁ〉

ᄆᆞᄅᆞ 對 要
ᄆᆞᅀᆞᆷ 對 心地
ᄆᆞᄎᆞᆷ 對 乃終
ᄆᆞᆺ다 對 究竟ᄒᆞ다
ᄆᆡᅀᅡᆼ 對 每常
마기오다 對 證ᄒᆞ다
만히 對 해
말 對 말ᄊᆞᆷ
맏다 對 領ᄒᆞ다
머굴우다 對 걸이다
머굴위다 對 걸이다
모ᄅᆞ다 對 迷ᄒᆞ다
모ᄅᆞ다 對 迷惑ᄒᆞ다
목숨 對 命
목숨 對 壽命
뫼호다 對 모도다
무듸다 對 鈍ᄒᆞ다
므겁다 對 重ᄒᆞ다
미좇다 對 좇다

〈ㅂ〉

ᄲᆞᆯ리 對 時急히
ᄇᆞᆯ써 對 ᄒᆞ마
받다 對 受ᄒᆞ다
보ᄇᆡ 對 珍寶
부르다 對 펴다
뷔듣니다 對 諭誡ᄒᆞ다
븥다 對 因ᄒᆞ다
빙다 對 흩다

〈ㅅ〉

ᄉᆞ랑ᄒᆞ다 對 ᄃᆞᆺ다
ᄉᆞ랑ᄒᆞ다 對 싱각ᄒᆞ다
ᄉᆞ외 對 仔細히
사ᄅᆞᆷ 對 이
사오납다 對 샬더럽다
商估 對 商人
셩가시다 對 시들다
손 對 客
術 對 法
쉬ᄇᆡ 對 수이
싁싁게 ᄒᆞ다 對 莊嚴ᄒᆞ다
ᄴᅴ 對 가지
시름 對 分別
時節 對 時
臣下 對 臣佐
實은 對 實엔
심기다 對 授ᄒᆞ다

〈ㅇ〉

ᄋᆡ 對 咄
아ᄃᆞᆯ 對 子息
아ᄅᆡ 對 몬져
아래 對 녜
아래 對 몬져
아래 對 아ᄅᆡ
安ᄒᆞ다 對 便安ᄒᆞ다
알다 對 領悟ᄒᆞ다
알다 對 解ᄒᆞ다
앒 對 前
애와티다 對 츠기 너기다
애왇브다 對 측ᄒᆞ다
어득ᄒᆞ다 對 어둡다
어려ᄇᆡ(어려이) 對 難히
어로 對 어루
어루 對 足히
얻다 對 得ᄒᆞ다
얼의다 對 셩긔다
얽믹여다 對 믹이다
없다 對 滅ᄒᆞ다
여름 對 果實
염글다 對 여믈다
예 對 이에
오ᄂᆞᆰ날 對 오ᄂᆞᆯ
오직 對 特別히
獄 對 牢獄
올ᄒᆞ다 對 明白ᄒᆞ다
우기누르다 對 다왇다
원틱 對 怨讎
恩德 對 恩

이긔다 對 이기다
이대 對 됴히
이러트시 對 이ᄀᆞ티
이어긔 對 이에
利益 對 利
이제 對 오ᄂᆞᆯ
일틀이다 對 잃다
일홈 짛다 對 일홈 짓다
잇그다 對 그으다
잇다 對 住ᄒᆞ다
잇브다 對 ᄀᆞᆺᄇᆞ다

〈ㅈ〉

ᄌᆞ라다 對 길다
ᄌᆞ라다 對 長大ᄒᆞ다
ᄌᆞ조 對 ᄌᆞ로
잘 對 能히
잘 對 이대
적 對 時節
적 對 제
제여곰 對 各各
조쳐 對 아오로
좇다 對 從ᄒᆞ다
죠고맛 對 져근
줄 對 ᄃᆞ
즉재 對 卽時예
智慧 對 智
眞實ᄒᆞ다 對 眞ᄒᆞ다
嗔心ᄒᆞ다 對 怒ᄒᆞ다
집 對 舍

〈ㅊ〉

窓 對 窓牖
처섬 對 始
쳔 對 쳔량
쳔량 對 財物

〈ㅌ〉

특특ᄒᆞ다 對 密ᄒᆞ다

〈ㅍ〉

펴디다 對 프다

〈ㅎ〉

ᄒᆞ마 對 쟝ᄎᆞ
ᄒᆞ야ᄇᆞ리다 對 헐다
ᄒᆞᆫ가지로 對 ᄀᆞ티
ᄒᆞᆫ갓 對 ᄒᆞ올로
ᄒᆞᆫ쁴 對 一時예
ᄒᆞᆫᄃᆡ 對 어우러
하다 對 만ᄒᆞ다
護ᄒᆞ다 對 護持ᄒᆞ다
훤히 對 快히